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202호 【루계 제26076호】 주체107(2018)년 7월 21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을 여러 나라에서 단행본으로 출판, 발행식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4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으로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로씨야 아르돈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6월 26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작을 탐독하면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선인민을 위해 불같이 살아오신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에 감동되였다.

김정일령도자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제시어 사회주의조선에서는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사회주의강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에 즈음하여 수리아 글로벌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3일에 진행되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서거 24돐에 즈음하여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김정일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치자》를 로씨야 라지오쏘프트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하였다. 로작발행식이 5일에 진행되였다.

출판사사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로작을 읽으면서 탁월한 사상리론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시대와 력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의 위인상에 매혹되였다.

김일성주석의 사상과 위업은 김정일령도자에 의해 빛나게 계승되였으며 오늘은 그분들의 념원을 실현하시기 위해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김정은최고령도자께서 제시어 조선에 반드시 사회주의강국이 일떠서려라고 확신한다.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슬로벤스꼬준비위원회가 4일 브라찌슬라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슬로벤스꼬주체사상지지 및 연구협회 위원장인 슬로벤스꼬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완 드락슬레르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하고있는 성과들을 소개선전하는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에티오피아준비위원회가 9일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되였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에티오피아 김일성-김정일주의연구전국위원회 위원장인 에티오피아-조선친선 및 련대성위원회 위원장 니가루 다그나체우가 선출되였다.

준비위원회는 7월 21일부터 9월 11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다양한 경축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불멸의 전승업적 만대에 빛내이리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련일 참관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풍치수려한 보통강반에 위치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는 참관자들의 대오가 끊임없이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과 로고에 의하여 로동당시대를 대표하는 대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백전백승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갈 굳센 의지를 심어주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항일무장투쟁관, 정규무력건설관 등 20여개의 관으로 되여있다.

어느해 7월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새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사상, 탁월한 령군술을 깊이 체득하며 선렬들의 고귀한 애국심과 인민의 혁명적신념과 의지의 발현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생애, 혁명력사에서 3년간의 조국해방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군사적예지와 탁월한 군사사상,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는 대기념비적창조물인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속에 백전백승의 력사를 줄기차게 이어갈 굳센 의지를 심어주는 승리전통교양의 중심지이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은 항일무장투쟁관, 정규무력건설관 등 20여개의 관으로 되여있다.

어느해 7월 21세기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새로 일떠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기념관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반제혁명사상, 탁월한 령군술을 깊이 체득하며 선렬들의 고귀한 투쟁정신과 넋을 이어나가도록 천만군민을 교양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전승 60돐을 맞으며 개관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수많은 혁명사적물들과 혁명사적자료들이 진렬되여있으며 수령님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친 우리 인민군용사들과 인민들이 탁월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정심과 대중적영웅주의, 고상한 정신도덕적풍성을 실감있게 보여주는 자료들과 전시물들이 전시되여있다.

또한 홀과 전시관들, 대형반경화와 전시물 등 모든 공간들이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고 독특한 내용을 담고 꾸려져있으며 공훈무기전시장을 비롯한 야외전시장이 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 진렬전시된 혁명사적물들과 혁명사적자료들, 각종 전시자료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 탁월한 령군술과 고매한 풍모를 깊이있게 보여주고있는것으로 하여 참관자들의 깊은 감동을 자아내고있다.

기념관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전쟁시기 당, 국가, 군대사업을 어떻게 이끄시였는가 하는것과 함께 조국해방전쟁이 얼마나 가렬하고 힘겨운 전쟁이였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전쟁에서 발휘한 수령결사옹위정신과 조국수호정신,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이 얼마나 값높은것인가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기념관을 찾는 수많은 해외동포들과 외국의 벗들도 주체적이며 탁월한 군사전법들을 구현하시여 빛나는 전승을 안아오신 강철의 령장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경탄을 금치 못하며 그이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참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전광남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자

당의 웅대한 구상을 받들고 삼지연군건설에서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자

216사단 건설자들과 삼지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궐기모임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삼지연군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관철을 위한 216사단 건설자들과 삼지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궐기모임이 20일에 진행되였다.

216사단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 돌격대원들, 삼지연군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로동당 량강도위원회 위원장 리상원동지의 보고에 이어 216사단 부참모장 김상룡동지, 조선인민군 군관 오철민동지, 922건설려단 라선시련대 정치부장 리영호동지, 삼지연군인민위원회 사무장 신정룡동지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험한 길을 헤치시며 베개봉전망대에까지 오르시여 삼지연군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건설을 최단기간내에 다그쳐 끝내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과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을 이 세상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특색있는 군으로 꾸리기 위한 투쟁에 고결한 충정의 마음을 바쳐가고있는 전체 건설자들에게 감사를 주시였다고 그들은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웅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조선혁명의 시원이 열린 삼지연군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산간도시로 훌륭히 전변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맡겨진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결의들을 피력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인 삼지연군을 모든 면에서 전국의 모범군, 본보기군이 되게 꾸리자는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전체 건설자들과 삼지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절세위인들의 혁명력사와 불멸의 업적이 깃들어있는 항일의 전구들과 혁명사적지들을 더 잘 꾸리고 철저히 보위하는 사업에 새롭게 충정을 바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삼지연군안의 여러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면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전투장마다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건설속도를 창조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백두의 혁명정신, 자력갱생정신으로 산악같이 일떠설 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요새도 없다고 하면서 군민협동작전의 거대한 위력으로 련속공격, 계속혁신하여 건설물의 속도와 질을 최상의 수준으로 보장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군인건설자들은 일당백공격속도, 단숨에의 공격정신으로 그날 전투과제는 그날로 해제끼며 지휘성원들이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호를 웨치며 실천적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강설량이 많고 기온이 낮은 북부지대의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건설공법들을 연구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며 건설 전과정이 설계와 시공의 요구대로 철저히 진행되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삼지연군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군의 주인으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당정책에 대한 견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군을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사회주의리상촌으로 일신시키기 위한 투쟁에 앞장서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건설자들과 군내인민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높이 받들어 삼지연군을 공산주의리상향으로 일떠세우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새 세기 혁명정신,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해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결의문이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9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수십개의 작업갱공사 결속, 기본물길굴건설성과 확대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온 나라에 혁명적대고조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단천발전소건설장에서 공사성과가 계속 확대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건설장적으로 수십개의 작업갱공사가 결속된 속에 기본물길굴건설에 진입한 많은 시공단위들에서 연 1만m가 넘는 기본물길굴도갱을 굴진하고 천수백m의 갱도를 확장하였다.

단천전역에서 이룩된 이 혁혁한 성과는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발전소건설자들의 고결한 충정과 불굴의 영웅적기개가 안아온 결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대건설전투장들에서 창조되는 새로운 건설속도와 시대정신은 천만군민을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영웅적투쟁과 위훈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합니다.》

당의 요구라면 단숨에 산악도 떠옮길 기세로 떨쳐나선 발전소건설자들의 도도한 기상은 단천전역에 창조와 혁신의 불길을 갈수록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대 장병들이 천연암반을 다스리며 완성해가는 기본물길굴은 이들의 견사관철의 정신과 담력이 어떤 높이에 있는가를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6월 중순까지 맡은 기본물길굴을 남먼저 관통시킨 이곳 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들은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갱확장공사에서도 승리의 개가를 높이 올리고있다.

영예로운 최전방격대로 자랑떨치는 부대장병들에 의해 갱도확장은 지금 총공사량의 40%계선을 넘어섰다.

조선인민군 백춘국소속부대 장병들도 방대한 단천5호발전소 언제공사를 다그치면서 기본물길굴도갱을 최단기간에 관통시킬 목표밑에 단숨에의 기상을 힘있게 떨치고있다.

갱건설을 맡은 부대아래 여러 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맡아해제낄 불타는 의지를 안고 압축기와 착암기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힘찬 돌격전으로 기본물길굴에 대한 굴진공사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부대의 인길만소속구분대 장병들은 갱작업과정에 발파가스를 신속히 제거할수 있는 방법을 탐구도입하여 착암진입시간을 앞당기고 매일 높은 비력처리실적도 기록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장일수소속부대의 지휘관, 전투원들도 유압식착암기를 비롯한 능률적인 굴진설비와 자재를 확보하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매일 굴진실적을 1.5배이상 기록하고있다.

부대장병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갱작업의 기계화비중을 최대로 높이면서 앞선 발파방법도 받아들여 굴진성과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군인건설자들의 전투적인 투쟁기풍을 본받아 자강도려단과 대홍기도국려단, 황해남도물길건설돌격대의 지휘관, 전투원들도 날마다 높이 세운 도갱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면서 혁신의 한길로 줄달음치고있다.

북성려단과 라선시려단 지휘관, 전투원들의 기세도 만만치 않다. 이 단위들에서는 아름찬 공사량에 비해 력량이 적은 조건이지만 교대별사회주의경쟁의 불길높이 가치있는 혁신안들을 받아들여 성과를 부쩍 올리고있다.

함경북도려단과 평양시려단의 지휘관, 전투원들도 과학기술에 의거한 자강력의 불길을 지펴올리며 천공개수를 높이고 발파효률을 끊임없이 높여나가고있다.

기본물길굴건설을 다그치는 시공단위 지휘관, 전투원들의 혁명적열의속에 건설장에서는 지금 매일 평균 100여m에 달하는 도갱굴진실적이 기록되고있다.

건설자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맞게 발전소건설현장지휘부에서는 모든 시공단위들이 기본물길굴형성을 위한 도갱굴진에서 계속 혁신을 창조할수 있게 화선식정치사업과 설비, 자재보장에 힘을 넣어 단천전역의 거세찬 승전을 더욱 높여주고있다.

현지보도반

년간 인민경제계획 완수, 계속 혁신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보통강유기질복합비료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세로 계속 혁신해나가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받들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총돌격전을 힘차게 벌려야 하겠습니다.》

평양시당위원회의 지도밑에 시농촌경리위원회일군들은 현장에 나가 걸린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주기 위한 조직사업을 앞세워나갔다.

그들은 온 나라 농촌들에 벼종자영양피복제를 생산보장한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서도 혁신을 창조하기 위한 과학적인 작전을 세웠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지력과 화학비료의 효과성을 높여주어 알곡증산에 이바지하는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다.

특히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선전선동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참신하게 벌려 로동자, 기술자들이 높은 혁명적자각과 열의를 안고 생산돌격전에 떨쳐나서도록 하였다.

일군들은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사회주의경쟁과 밀접히 결부하여 실속있게 벌려 생산적앙양이 일어나게 하였다.

결과 생산공정의 자동조종체계가 확립됨으로써 교대당 수십명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비료의 질을 현저히 높일수 있는 생산장성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였다.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월별, 주별, 일별, 시간별전투계획과 교대조직을 빈틈없이 하고 최대의 실적을 올리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렸다.

교대장들은 설비판리, 기술관리를 책임적으로 진행하도록 로동자들을 이끌어 기대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였다. 그리하여 원료공급, 분쇄, 선별, 혼합 등 모든 공정들에서의 질적보장수준이 더욱 높아졌다.

혁신의 동음 높이 울리는 전투장에서는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작업조호상간에 다음교대를 위하여 유리한 생산조건을 마련해주는 미풍이 꽃펴났다.

들끓는 증산경쟁의 불길속에 누구나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한약을 보장하는 심정으로 두몫, 세몫을 해제꼈다.

녀성종업원들은 맡은 일을 끝마치고는 현장으로 달려나와 노래도 불러주면서 로동자, 기술자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온 공장이 하나의 지향으로 불도가니마냥 무글무글 끓어번졌다. 처음 세운 계획보다 하루생산실적이 2배이상으로 뛰어오르는 성과가 날마다 기록되였다.

결과 년간 수천t의 유기질복합비료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빠른 기간에 수백t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증산하여 뜻깊은 광화국창건 일흔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뗏뗏이 맞이할 열의밑에 돌격전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본사기자 박영진

설비, 부속품생산 적극 추진

득장탄광기계공장에서

득장탄광기계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상반년 공업총생산액계획과 지표별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한 기세로 성과를 더욱 확대하고있다.

공장당조직에서는 생산적앙양에로 기술자, 로동자들을 불러일으키는 화선식정치사업을 참신하게 벌리고 사회주의경쟁열풍을 세차게 고조시키고있다.

참모부에서는 석탄생산을 늘이는데 필요한 설비와 자재, 부속품과 소공구들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방도를 물질기술적토대를 보다 강화하는데서 찾고 그 실현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명적으로 해나가고있다.

공장의 기술자,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려 어려대의 가공설비들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마련하여 생산적앙양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그들은 자력갱생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막아서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매일 생산과제를 넘쳐 수행하고있다.

주강작업을 맡은 로동자들은 새로운 주강품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만가동을 보장하여 설비와 부속품, 소공구생산에 필요한 소재를 원만히 생산보장하고있다.

단조작업을 맡은 로동자들은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공기함마를 정상가동시켜 단조품생산을 늘이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도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며 힘찬 투쟁을 벌려 석탄생산에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 소공구들을 더 많이, 질적으로 생산하여 탄광들에 제때에 보내주고있다.

그들의 힘찬 투쟁은 석탄증산에 떨쳐나선 탄부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본사기자 명춘길

전화의 나날에 수놓아진 후대사랑의 서사시

7월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강산에 더욱 세차게 굽이치고있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이 다가오고있는 이즈음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끄신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세계의 위인전에는 후대들에 대한 사랑을 미덕중의 미덕으로 여겨온 일화들이 전해지고있다. 그러나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조국의 운명을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화의 불길속에서 숭고한 후대사랑으로 아이들을 한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 같으신 절세의 위인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하였다.

산천초목도, 동서해 푸른 물도 어버이수령님의 불멸할 그 업적, 그 사랑을 못 잊어 끝없이 설레이는 이 시각 이 나라 천만아들딸들은 수령님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고 목메여 말한다.

포화속에서 수놓아진 감동깊은 후대사랑의 서사시,

그것은 후대들에 대한 문제를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아이들을 조국의 앞날을 떠메고나갈 귀중한 보배로, 혁명의 계승자로 억세게 키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천출위인상을 온 세상에 소리높이 전하는 훌륭하고 아름다운 송가라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참으로 김일성동지는 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며 만민이 우러르는 절세의 위인이시다.》

인류전쟁사를 더듬어보면 엄혹한 전란으로 하여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짓밟히고 속절없이 시들어버리는 것과 같은 일들이 례상사로 되어왔다.

부모를 잃고 길가의 조약돌신세가 되여 굶주리며 방황하는 고아들, 공포와 절망속에 생기를 잃은 어린이들…

지금껏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것은 피할수 없는것으로 여겨왔으며 그 어느 나라도 전쟁으로 인하여 산생된 고아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우리 조국에서는 포화속에서도 조국의 미래가 활짝 피여나고 부모를 잃은 고아들도 설음을 모르며 활기에 넘쳐 자라났으니 위대한 후대사랑이 전하는 만단사연을 우리 어찌 격정없이 되새길수 있으랴.

주체39(1950)년 12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순천땅의 한 집을 찾으시였던 이야기가 뜨겁게 되새겨진다.

주인아주머니로부터 마을에서 당세포위원장을 하던 남편이 원쑤들에게 무참히 학살되고 집세간을 강탈당한데 대한 가슴미어지는 이야기를 들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없이 곤히 자고있는 아이들을 바라보시였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시여 그냥 아이들의 얼굴을 쓰다듬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인에게 얼마동안만 참으라고, 이 애들을 아버지있는 애들 부럽지 않게 키워보자고 하시면서 당과 조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 아버지의 아들딸답게 나라의 튼튼한 기둥감으로 키우자고 거듭 뇌이시였다.

떠나시기에 앞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녀인에게 아이들의 문제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라고 재삼 당부하시였다.

부모잃은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야 한다!

이것이 그날 우리 수령님의 가슴을 끓게 한 뜨림없는 신념이였다.

평양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국각지의 유자녀들과 전재고아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후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소집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모든 유자녀들과 전재고아들을 나라에서 맡아키울 혁명적인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조국해방전쟁에서 희생된 인민군장병 및 빨찌산들과 애국렬사들의 유자녀학원설치에 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결정은 이렇게 채택되였다.

전쟁의 폭음을 짓누르며 온 나라방방곡곡에 울려퍼진 내각결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의 결정체였으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혁명의 피줄기를 이어갈 우리 후대들을 더욱 튼튼히 키우실 절세위인의 숭고한 후대사랑의 의지를 천명한 장엄한 뢰성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김정숙녀자기술학원이 창설되고 나라의 곳곳에 애국렬사유자녀들과 전재고아들을 국가부담으로 키우기 위한 유자녀학원과 유자녀보육원, 초등학원과 애육원들이 세워졌다. 그리하여 유자녀들, 적후에서 헤매던 전재고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행복하게, 씩씩하게 자라나게 되였다. 조국땅 그 어디서나 울리는 아이들의 글소리, 노래소리가 적들의 미친듯 한 폭음을 누르며 더욱 랑랑히 울려퍼졌다.

력사의 그 나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자녀들과 고아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키우겠는가를 마음쓰시며 늘 그들의 생활을 친어버이의 심정으로 관심하시고 보살펴주시였다.

어느 한 초등학원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교직원들과 함께 원아들의 침실을 돌아보시며 방이 모자라 침실을 낮에는 교실로 쓰고있다는것을 아시고 군인들을 보내겠으니 교실과 목욕탕을 잘 짓고 운동장도 넓혀주라고 한없는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식당을 돌아보시며 부식물공급정형을 알아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오리와 염소를 보내주겠으니 원아들에게 더 많은 고기와 젖을 먹이도록 하라고 간곡히 이르시였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밤늦게까지 원아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의 소박한 예술공연도 보아주시였다. 원아들의 공연을 보는것이 좋은 극장에서 전문예술인들의 공연을 보는것보다 더 기쁘다고 하시며 종목이 바뀔 때마다 박수도 쳐주시고 잘한다고 칭찬해주신 위대한 수령님,

전쟁 가없이 푸른 하늘의 높이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수령님의 극진한 사랑속에서 부러운것없이 어엿하게 자라난 우리 어린이들이였다.

때로는 원아들의 부식물공급정량표를 보아주시며 원아들은 당과 국가밖에 믿을 곳이 없는 아이들이니 나라의 사정이 아무리 곤난하더라도 이 애들의 생활을 더 잘 돌봐주자고 하시면서 친히 정량표에 팔, 사과, 우유, 사탕, 두부를 더 적어넣으신 위대한 수령님,

부모없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하시며 한 아이를 최고사령부로 데려오게 하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나라의 운명을 건 판가리싸움을 지휘하는 최고사령부에서 최고사령관이 아이를 키우며 돌봐준 이야기가 세계전쟁사의 그 어느 갈피에 새겨진적 있었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최고사령부에서 키우신 어린이!

전설같은 이야기와 더불어 그 나날의 혁명일화가 다시금 뜨겁게 되새겨진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하루에도 몇차례씩 그 애가 있는 방으로 가시여 잠은 잘 자는가, 밥은 잘 먹는가, 옷이 어지럽지 않은가를 다심하게 보살피시고 전선과 후방에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들을 처리하시느라 밤을 지새우시면서도 어린애가 있는 방에 들어가시여 이마를 짚어보시였으며 일군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아이의 건강대책도 세워주시였다. 낮가림을 하던 아이는 어느덧 우리 수령님의 품에 안겨들며 《아버지!》 하고 불렀으며 그이의 품에서 재롱을 부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빛을 가득 안은 풀송이처럼 무럭무럭 자라는 아이에게 우리 말을 가르쳐주시고 자장가도 들려주시면서 그의 모습에서 튼튼하고 명랑하게 자라나는 온 나라 아이들의 얼굴을 보시는듯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한번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중요한 회의를 하시다가 휴식시간에 일군들과 함께 아이가 있는 방에 들리신적이 있었다. 어버이수령님앞에서 아이는 노래를 부르고 수령님의 품으로 와락 달려와 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의 머리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여기에 아이가 있으니 웃음이 있고 랑랑한 노래소리를 들을수 있으니 좋다고, 어려운 전쟁을 하면서 고생스럽더라도 우리는 이 애들을 잘 키워야 하겠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것은 피흘리며 싸우는 전우들에 대한 혁명적의리로 보나 또 장차 조국을 떠메고나갈 후대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한 전사의 유가족을 위한 내각결정이 채택되였다는 이야기는 또 얼마나 만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것인가.

뜻밖에도 한 일군의 희생에 대한 비보를 받으시고 그에게는 어머니없는 세 자식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마저 전사하였으니 우리가 그 애들을 맡아 잘 키워야 하겠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

그들을 보살펴줄데 대한 내각결정을 채택하자고 하시며 교시하시던 우리 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지금도 우리의 심장에 뜨겁게 파고든다.

내각결정이라는것은 국사를 결정하고 국사만 론하는것이 아니다. 혁명가들이 얼마나 후대를 귀중히 여기고 인간을 귀중히 여기는가를 세상에 대고 소리쳐보자. 이것은 혁명의 계승에 관한 문제이다. …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우리 수령님의 숭고한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 그 얼마나 많던가.

전쟁이 끝나면 우선 평양에다 학교를 더 크게 짓고 아이들을 공부시킬 준비를 하자고 하시면서 우리가 혁명을 하는것도 후대들을 위해서이라고, 아이들을 훌륭한 일군으로 키워내자고, 그래야 우리의 손으로 파괴된 도시와 농촌을 더 아름다운 락원으로 건설할수 있다고 하신 뜻깊은 가르치심, 한 어린이의 학습정형을 료해하시며 공부를 잘할데 대하여 차근차근 일깨워주신 다심한 사랑, 한 군인의 안해가 세 아이를 데리고 후퇴하던 도중 들판아들을 잃어버린채 그냥 왔다는것을 아시고 명령을 내리시여 아이를 끝내 찾아오도록 하신 류례없는 사랑…

정녕 태양보다 더 강렬한 어버이사랑으로 온 나라 아이들을 품에 안아 보살펴주신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업적을 무슨 말로 다 전할수 있으랴.

전쟁과 함께 우리 인민은 고귀한 진리를 체득하였다. 자기들의 삶의 리전인 조국의 귀중함을 뼈에 새겨안았고 천재적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우리 수령님의 령도아래 무적의 힘을 떨치는 인민군대의 무비의 영웅성을 보았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하시는 우리 수령님의 위대한 사랑을 눈물겹게 절감하였다.

그렇다.

사랑의 힘은 강하다. 그것은 죽음도 시련도 이겨내는 비길데없는 위력이다. 절세의 위인의 열화같은 그 사랑이 있어 우리는 가렬한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 신념이 천만의 가슴을 용암마냥 끓어번지게 하였기에 우리 조국은 세계전쟁사가 알지 못하는 기적을 창조하며 위대한 전승을 안아올수 있은것 아니던가.

후대들에 대한 사랑은 인간이 지니고있는 사랑가운데서도 가장 헌신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이며 인류에게 바쳐지는 송가가운데서도 가장 순결하고 아름다운 송가이다.

이런 숭고한 리념으로 전화의 불길속에서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서사시를 광휘롭게 수놓으신 우리 수령님,

불멸할 그 업적 천만년세월이 흐른들 우리 어이 잊을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후대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여 조국의 미래가 활짝 꽃피는 아름다운 력사를 변면히 펼쳐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마음껏 자라나는 우리 후대들의 모습은 절세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여 조선의 미래는 언제나 밝고 창창하다는 진리로 세계를 끝없이 경탄시키고있다.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를 소리높이 부르며 씩씩하게 자라는 우리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에서 세상사람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 장군복이 있어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앞길이 그리도 휘황찬란하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김 성 남

김영남동지가 필리핀민주주의인민권력당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의례방문하여온 루트가르도 바르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필리핀민주주의인민권력당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천리혜안의 예지, 비범한 선견지명

한 일군이 받은 과업

조국해방전쟁이 시작되여 몇달이 지난 어느날이였다.

한 일군은 김책동지로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과업을 전달받게 되였다. 함경북도, 함경남도일대의 중요공장, 기업소들의 파괴정형을 조사하고 복구할 안을 세울데 대한 과업이였다.

일군의 가슴은 놀라움과 흥분으로 높뛰였다. 전쟁의 포화속에 모든것이 파괴되고 준엄한 정세에 맞게 당면한 전시생산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집중되고있는 때에 복구안이라니 너무도 뜻밖이였던것이다.

일군의 상기된 모습을 보며 김책동지는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내용을 정중히 전달하였다.

아마 우리가 오늘의 형편에서 전후복구건설을 위한 예비조사를 함께 대한 과업을 주면 지금 어려운 전쟁을 하고있는데 무슨 복구문제를 과업주는가고 놀라와할수 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힘겨운 전쟁을 하고있으며 전쟁은 장기화되고 더욱 가렬해지고있다. 그러나 어느때 가서든지 우리는 반드시 이길것이며 승리한 조국강토에 더 큰 공장들을 세울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전쟁을 치르면서 페부로 절감한 피의 교훈은 무엇인가, 총을 만들어도 제손으로 만들고 앞으로 공장을 복구해도 제손으로 해야 한다는것이다. …

위대한 수령님의 귀중한 가르치심을 크나큰 감동속에 받아안으며 일군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머나먼 편답의 길에서 피해정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으며 복구안까지 작성하였다.

그가 임무를 수행하고 평양에 돌아왔을 때 국가계획위원회에서는 벌써 전후복구건설계획작성사업을 본격적으로 다그치고있었다. 그 놀라운 광경은 일군의 가슴을 더욱 이름할수 없는 감동으로 끓어번지게 하였다.

임무를 수행하면서도 복구건설준비사업이 이처럼 빨리 진척되리라고 미처 생각지 못하였던 일군은 우리 수령님의 필승의 신념과 철의 담력과 배짱, 천리혜안의 선견지명에 또다시 탄복을 금치 못하였다.

일군이 작성한 조사자료와 복구안은 복구건설준비사업에 긴요하게 쓰이였다.

평양시내를 돌아보시며

주체40(1951)년 1월 어느날에 있은 일이다.

한겨울이라 날씨는 바늘로 살을 꼭꼭 찌르듯이 맵찼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새벽에 일군들과 함께 평양시내의 중심부를 따라 걸음을 옮기시였다.

시내는 도로며 건물들이 무참히 파괴되였다. 어디를 보나 참혹한 폐허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평양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장대재언덕의 2층벽돌집지붕에 오르시였다. 거리들을 오래도록 바라보시던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이 끝나면 평양을 새로 건설해야 하겠는데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서로 보기만 할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후복구건설을 준비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이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일본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으켜세울 준비를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전의 평양거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건설해야 하겠는데 생각되는것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시였다. 순간 일군들은 너무도 뜻밖이여서 서로 보기만 할뿐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전후복구건설을 준비해가지고는 안된다고, 이것은 우리 혁명가들의 일본새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지금부터 평양시를 일으켜세울 준비를 잘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전의 평양거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는 새로운 평양, 현대적이고 아름다운 대도시를 일떠세울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였다.

시내에 대도로를 뚫고 근로자들의 살림집을 지으며 곳곳에 공원과 유원지를 꾸릴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의 웅대한 복구건설구상을 받아안는 일군들의 가슴은 감동과 경탄으로 설레였다.

며칠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한 설계가를 최고사령부로 부르시여 평양시복구건설총계획도를 작성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그리고 설계일군들이 작성한 설계도를 거듭 보아주시며 완성시켜주시였다.

불세출의 위인이신 우리 수령님의 이런 비범한 예지, 탁월한 선견지명이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전승의 그날부터 구체적이고 정확한 복구건설계획도에 따라 이 땅우에 복구건설의 새 력사, 새로운 승리의 력사를 수놓을수 있었던것이다.

본사기자

전승에로 부른 눈부신 설계도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가렬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에 벌써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내다보시고 평양시복구건설의 설계도를 무르익히시였으며 전후에 몸소 평양시복구위원회 위원장이 되시여 수도건설을 친두에서 지휘하시였습니다.》

가렬한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설계가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복구건설에서도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과업에 따라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을 완성하였다.

설계가들을 최고사령부로 부르시고 설계도면을 보아주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금 전쟁을 하고있고 또 눈에 보이는것이 파괴뿐이여서 그런지 설계를 너무 소극적으로 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서운해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이 설계가들의 심장을 쿵쿵 높뛰게 하였다.

전쟁의 불길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우리 인민의 힘을 볼줄 알아야 한다, 전쟁에서 우리는 벌써 이겼다, 이런 립장에 설 때라야 인민을 위해 좋은 설계를 할수 있으며 설계에서 대담성을 낼수 있다.

바로 이때 공습경보를 알리는 고동소리가 들려왔고 뒤이어 전선의 어느 군단에서 급한 정황을 보고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즉시 그 모든 정황을 처리하신 다음 다시 설계가들곁으로 오시여 말씀을 이어시였다.

침략자들이 하나를 마스면 우리는 열, 백을 일떠세울데 대한 가르치심이였다.

몸소 작전도를 그리시던 색연필을 드시고 설계도면에 표식을 하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설계가들에게 평양시를 더욱 밝고 웅대하며 민족적정서가 넘치는 가장 현대적인 도시로 다시 설계할데 대한 과업을 주시였다.

대성산과 모란봉, 만수대와 남산, 창광산과 해방산과 같은 아름다운 릉에 근로자들의 휴식터를 예견할데 대한 문제, 보통강토성랑을 유원지로 꾸릴 계획을 더 구체적으로 할데 대한 문제, 학교와 유치원들을 잘 설계하여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할데 대한 문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윽고 벽에 걸린 조선지도를 바라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시선은 포연에 싸여있는 조국의 산야와 페허로 된 도시와 마을들에서 우후죽순처럼 새로 일떠서는 수많은 공업지구들과 행복한 마을들, 휴양소들과 아이들의 놀이터를 보시는듯 하였다.

그리고 귀여운 아이들이 노래소리높이 웃고 떠들썩하게 공원으로 달려가는 모습이며 소년단넥타이를 휘날리며 줄지어 학교로 가는 학생들의 장한 모습을 눈앞에 선명히 보고계시는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그대로 도면우에 옮기리라.

이런 맹세를 다지는 설계가들의 가슴에 광만이 한껏 차고넘치였다.

그런 설계가들을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화신에 넘쳐 교시하시였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것을 가지고 우리의 머리로 사고하고 제힘으로 더 크고 더 웅장하게 도시를 일떠세웁시다. …

불타는 밤과 련속적인 포성도, 뒤엉키는 초연과 격렬한 전투도, 불타버린 마을과 재더미로 된 도시들도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구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색을 막지 못하였다.

병사들을 전선에 보내시면서도, 전선사령부에 새로운 명령들을 주시고난 때에도, 깊은 밤 작전도앞에서나 인민들을 찾아가시는 새벽길에서도 승리한 조국의 건설과 번영을 생각하시였고 눈부시게 일떠설 앞날의 조국을 그려보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의 이런 정력적인 령도와 불면불휴의 헌신으로 완성된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이였다.

평양시복구건설을 위한 설계도면이 완성되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번에는 각 도소재지들의 복구건설설계도를 완성할데 대한 새 과업을 주시였다.

전선에서 전투가 날로 격화되던 어느날이였다.

모란봉지하극장에서는 평양시를 비롯한 도소재지들의 복구건설전망을 보여주는 설계전람회가 열리였다. 한치의 땅을 두고 치렬한 격전이 벌어지고있는 때에 열린 전람회는 전쟁파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듯 화려하고 웅장한 거리와 건축물들을 자랑하고있었다.

전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은 웅대하게 일떠서게 될 수도와 도시들만 본것이 아니라 전쟁의 불길속에서도 위대한 승리를 락관하는 강용한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읽었다.

전승을 확신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신 전람회였다.

이 소식이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전선으로 가는 련지들을 통하여 싸우는 인민군전사들에게 전해졌다.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자 싸우는 고지들에서 인민군용사들은 웅대한 수도의 모습과 새로 일떠설 자기들의 고향을 그려보았다. 상처를 입고 쓰러졌던 병사의 눈동자도 밝은 빛을 띠였고 총을 더욱 으스러지게 틀어잡으며 결사전에 나섰다.

《평양시를 세우기 위하여 돌격 앞으로!》

《공장을 세우기 위해, 용광로의 쇠물을 다시 뽑기 위해, 휘황한 미래를 위해 돌격 앞으로!》

불타는 고지들에서 이런 웨침이 터져나왔다.

그 불굴의 투지와 위력앞에서 파괴전략에 매달리던 적들은 전률하지 않을수 없었다.

바로 이러한 때 유럽의 어느 한 나라 수도에서는 세계건축가들의 모임이 있었다. 우리 나라의 건축가들은 여러 나라들에서 모여온 건축가들앞에서 전쟁으로 재더미만 남은 평양의 파괴상을 환등으로 보여주고 련이어 그 재더미를 털고 일떠설 평양의 웅장하고 화려한 설계를 비쳐주었다.

페허우에서 솟아오르는 영웅도시 평양, 그것은 그대로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였고 영웅한 인민의 불굴의 기상이였다. 그것은 또한 정화로운 모든것을 재더미로 만든 침략자들의 정수리를 내리치는 조선인민의 철추였으며 파괴는 결코 창조와 건설을 이겨낼수 없음을 세상에 보여준 일대 시위였다.

브라질에서 온 한 건축가는 자기의 격동된 심정을 이렇게 토로하였다.

《전쟁의 폭격속에서도 전승의 교향악을 울리는 인민, 검은 포연이 도시와 마을, 하늘과 땅을 뒤덮는 속에서도 승리를 내다보며 아름다운 화폭을 설계하는 인민, 력사는 아마도 조선인민보다 더 영웅적이고 랑만적인 인민을 더는 모를것이다. 그런 불사조의 투지와 신념을 당신들의 가슴에 안겨주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신 당신들이 승리하고 아름다운 도시와 마을을 일떠세우리라는것을 그 누가 확신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존함은 승리의 상징으로 온 세계에 찬연한 빛을 뿌리였다.

본사기자 한 영 민

최룡해동지

평양건축종합대학 현지료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동지가 평양건축종합대학을 현지료해하였다.

최룡해동지는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면서 나라의 건축인재양성의 원종장, 건설과학의 첨단을 돌파해나가는 과학연구기지로서의 대학의 발전력사에 깃들어있는 당과 수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교직원, 학생들속에 길이 새겨지게 하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더욱 심화시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축설계실, 원격교육대학강의실 등 여러곳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 5돐을 교육과 과학연구사업의 자랑찬 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대학의 사업목표와 집행정형을 료해하고 당의 주체적건축사상으로 무장하고 높은 실력을 소유한 건축인재들을 더 많이 육성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교원들의 자질과 책임성을 높이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부단히 개선하는것과 함께 교수교양과 과학연구사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당적지도를 짜고들데 대한 문제들이 토의되였다.

최룡해동지는 대학에서 자체의 힘으로 꾸려놓은 종합축산기지를 돌아보면서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고기와 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있는 이 단위의 성과를 적극 일반화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전력증산과 절약투쟁을 강화하여 경제건설대진군에 활력을 더해주자

혁신적인 안목으로 찾아낸 증산예비

청천강화력발전소 일군들의 사업에서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정신을 피끓는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청천강화력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이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에 필요한 내열세멘트생산기지를 일떠세우고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와 공기분리장치를 제작도입하여 상반년 전력생산계획을 빛나게 초과완수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다른 발전소들과 마찬가지로 현행생산이 드바쁜 속에서도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심속있게 다그쳐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화력에 의한 전력생산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불비한 발전설비들을 정비보강하여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화력발전소에서 생산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는 첫째도 둘째도 석탄이다. 석탄을 어떻게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는가에 따라 전력생산성과가 좌우지된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발전소의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효률높은 설비들을 적극 창안도입하여 같은 석탄을 가지고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하는데 화력을 집중하였다.

일군들의 작전에서 주목되는것은 우선 면밀한 과학적타산에 기초하여 새 설비들의 창안도입에서 단번성공하도록 함으로써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한것이다.

미분탄선별기들의 제작과정을 놓고보자.

일군들은 미분탄선별기의 제작도입공정을 하나하나 따져가며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설계방법을 과학화하고 설계수단을 현대화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기술자들이 책임성과 의무감만 가지고서는 설계를 완벽한 수준에서 할수 없고 종이장에 설계도면을 그리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설계에서 점 하나를 잘못 찍고 선 하나를 잘못 그으면 적지 않은 자재와 로력이 랑비되게 된다.

이것을 명심한 김창일, 림광주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은 현대적인 콤퓨터들과 다차원설계프로그람들을 적극 받아들여 설계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이와 함께 유능한 기술자들과 대보수직장의 기능공들을 망라하여 자체의 기술기능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설계와 설비제작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나갔다.

장진남동무와 열조종실의 전봉준, 박대일동무들은 피타는 사색과 고심어린 탐구를 기울여 미분탄선별기의 제작을 높은 질적수준에서 다그칠수 있게 기술준비사업을 실속있게 한데 기초하여 콤퓨터에 의한 모의설계를 책임적으로 진행하였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여야 보배이다. 설계가 아무리 잘되였어도 실지 부속품가공과 부분품조립을 바로하지 못하면 단번성공을 기대할수 없다.

일군들은 로력조직과 설비리용을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여 설비제작속도와 질을 다같이 높은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고 현장에서 기술지도를 짜고들면서 요구성을 부쩍 높이였다.

직장장 림종인동무와 곽승철, 리천학동무를 비롯한 대보수직장의 기능공들은 주인다운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 미분탄선별기제작의 모든 공정에서 과학기술적요구를 철저히 지키였다.

이들은 현대적인 기공구들을 적극 리용하고 합리적인 가공방법들을 널리 받아들여 한주일동안에 2대의 미분탄선별기를 높은 질적수준에서 제작하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결과는 성공적이였다. 발전소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효률높은 미분탄선별기들을 4호보이라에 도입하는데 단번성공함으로써 많은 자재,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종전보다 증기생산량을 1.1배이상으로 끌어올리게 되였다.

뿐만아니라 능률높은 공기분리장치를 비롯한 설비들을 련속 보강하여 년간 수백만kWh의 증산예비를 마련할수 있었다.

이곳 일군들이 다음으로 중요하게 틀어쥔 고리는 실리보장의 원칙에서 주요대상에 화력을 집중하고 모가 나게 해제끼는것이다.

그 대표적인 실례가 바로 내열세멘트생산기지를 짧은 기간에 일떠세운것이다.

지난 시기 발전소에서는 내열세멘트를 제때에 원만히 마련하지 못하여 발전설비들의 정비보수를 일정계획대로 다그치는데 적지 않은 지장을 받고있었다.

일군들은 자기 단위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구체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하여 섬멸전의 방법으로 내열세멘트생산기지건설부터 와닥닥 끝낼것을 결심하였다.

이들은 기술과와 기술발전과, 공업시험소를 비롯한 발전소의 기술력량을 집중하여 내열세멘트생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혁명적으로 풀어나가도록 하면서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였다.

공업시험소의 일군들과 기술자들, 자력갱생직장의 기능공들은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소성로를 합리적으로 쌓고 마광기와 초미분쇄기를 질적으로 제작하는 자랑을 떨치였다.

이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고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받아들이면서 내열세멘트생산에 필요한 공정들을 빠짐없이 갖추어놓았다.

발전소적인 력량이 총동원되여 짧은 기간에 내열세멘트생산기지를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일떠세움으로써 발전설비들의 정보수 및 대보수를 더욱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밑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청천강화력발전소 일군들의 사업경험은 생산공정의 기술개건을 다그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혁신적인 안목으로 심속있게 조직진행해나갈 때 생산적앙양과 비약을 일으킬수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

본사기자 정순성

생 명 선

◇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

얼마전 어랑천5호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힘들게 발전소를 건설해놓고 전력을 능력대로 생산하지 못하면 안된다고 하시면서 효률이 높고 현대적인 발전설비들을 설치하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여 전력생산을 끊임없이 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와 함께 송배전계통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면 몇개의 발전소를 새로 건설하는것과 맞먹는 전력예비가 나오게 된다고 하시면서 품이 좀 들더라도 전력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결정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당의 구상과 의도를 높이 받들고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들을 시급히 정비보강하며 전력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증산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

◇ 과학기술에 철저히 의거하여 자강력을 끊임없이 증대시킬 때 생명선의 숨결이 거세차게 높뛰게 된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 발전소들의 불비한 생산공정과 시설들을 정비보강하고 기술개건을 다그쳐 발전설비의 효률을 높이고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며 전력생산원가를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지난해 전형단위의 영예를 지닌 수풍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은 과학적인 수위조절방법과 발전기대들사이 최량부하분배방법을 받아들여 운영효률을 높이고 발전설비현대화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년간 수천만kWh의 전력을 더 생산할수 있는 밑은 전망을 열어놓았다.

서두수발전소의 로동계급도 과학적인 전력생산방법들을 받아들이고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실천하여 자체의 물질기술적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지였다.

바로 이들처럼 전력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을 원동력으로 결사적인 투쟁을 벌릴 때만이 전력문제해결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이룩할수 있다.

◇ 총집중, 총공세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수력발전소들에서 효률높은 새형의 수차들과 현대적인 수자식조속기, 려자기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며 발전설비현대화를 빠른 속도로 다그쳐야 한다. 화력발전소들에서는 발전설비대보수를 질적으로 끝내고 산소에 의한 미분탄착화와 연소안정화기술을 시급히 도입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실속있게 운영하며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결정적으로 줄여야 한다.

전력문제해결에 국가적인 힘을 집중하여 발전소들에 필요한 설비, 자재, 연료를 만사를 제쳐놓고서라도 무조건 제때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온 나라가 어랑천발전소 건설자들과 호흡을 같이하며 지금 진행중에 있는 대규모발전소들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총돌격전에 과감히 떨쳐나서야 한다.

자기 고장, 자기 단위에 필요한 전력은 자체로 풀어나간다는 혁신적인 안목과 혁명적인 립장을 지니고 우리의 힘과 기술로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풍력과 조수력, 생물질과 태양에네르기에 의한 전력생산을 늘이면서 자연에네르기의 리용범위를 계속 확대하여야 한다.

모두다 전력공업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이며 심장과도 같다는것을 명심하고 전력문제를 결정적으로 풀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

발전효률제고에 큰 힘을

허천강발전소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허천강발전소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게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어 좋은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전력공업부문에서는 발전설비와 구조물보수를 질적으로 하고 기술개조를 다그쳐 전력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정신을 높이 받들고 모든 전력생산자들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나가도록 하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있다.

4.15기술혁신돌격대 대장 량철만동무와 돌격대원들은 당조직의 적극적인 지도와 힘있는 방조밑에 단계별목표를 현실성있게 세운데 기초하여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기술혁신정형을 월별, 분기별로 실속있게 총화대책하는것과 함께 일군들부터가 주요연구과제들을 하나씩 맡아 생산자대중과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가며 두뇌전, 기술전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다.

발전소의 모든 기술자, 로동자들이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높이 자력갱생, 견인불발의 투쟁정신으로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끼고있다.

발전소의 기술자들은 해당 단위들과의 련계를 밀접히 하고 앞선 설계프로그람들을 적극 받아들여 여러가지 기술적문제들을 자체실정에 맞게 해결함으로써 짧은 기간에 2대의 수자식조속기를 제작도입하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

전기기계직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제작공정을 단축하여 2호발전소에 효률높은 새형의 수차를 빠른 기간에 도입한데 이어 또 하나의 수차제작을 일정계획대로 다그치고있다.

특히 수십대의 변압기들을 기술개조하고 주요송전구간의 전압단계를 종전보다 3배이상으로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서 큰 전진을 이룩하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여러 직장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도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고 최대한 증산하고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30여대의 각종 전기절약설비들을 도입하였다.

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은 생산현장들에서도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문정혁동무를 비롯한 4호발전소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수자식압력계 및 류량측정장치를 새로 창안도입하기 위한 사업에서 남다른 모범을 보이고있다. 이들은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적극 받아들여 주변압기들의 정상가동을 책임적으로 보장하고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매달 전력생산계획을 초과완수하는데 적극 기여하고있다.

3호발전소와 2호발전소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수자식온도측정 및 자동조종장치와 능률높은 뽐프를 새로 창안제작하여 많은 전력증산예비를 얻어내고있다.

상반년기간 수십건의 가치있는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증산의 돌파구를 힘차게 열어제낀 허천강발전소의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은 오늘도 순간의 자만이나 답보도 없이 발전효률을 더욱 높이기 위한 투쟁에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다.

본사기자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기 위한 방도

평양시송배전부 일군들과 나눈 이야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송배전망을 개건보수하고 전압단계와 력률을 높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송전계통을 점차 유연교류송전계통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효률이 높은 현대적인 발전설비들을 설치하여 전력생산을 늘이는것과 함께 송배전계통에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여야 긴장한 전력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얼마전 평양시송배전부의 일군들을 만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기자: 생산된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는데서 송배전부문이 맡고있는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기사장 조광혁: 그렇다. 송배전계통에서의 도중손실만 줄여도 많은 전력예비를 얻을수 있다.

전력도중손실을 극력 줄이자면 송배전선로들을 기술적특성과 용도에 맞게 정리 및 교체하는것과 함께 송배전전압단계를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

실례로 현재 진행되고있는 불비한 배전선로교체사업이 결속되여 정상운영되는 경우 많은 도중손실을 줄일수 있다.

우리 송배전부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전선들과 차단기와 단로기대보수, 현수애자들을 교체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고있다.

해당 지역의 송변전설비들의 기술적특성을 타산하여 배전계통을 합리적으로 구성하면서 실정에 맞게 선로들을 정리해나가고있다.

공화국창건 70돐을 자랑찬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해 전력생산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본사기자 리동규 찍음

기사장: 지금 진행하고있는 주변구역들의 배전전압단계를 높이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싶다.

기사장: 중심구역들과는 달리 주변구역들에는 농장들이 있는것과 관련하여 양수보장용고압전동기들에 대한 기술개건을 선행시키지 않는다면 배전전압단계를 높이는 사업에서 성과를 거둘수 없다.

그래서 우리 송배전부에서는 사동구역의 어느 한 농장을 시범단위로 정하고 고압전동기들에 대한 기술개조를 진행하여 농장을 끼고있는 지역들에서 배전선로들의 전압단계를 높이는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았다.

전압단계를 올리기 위한 기본공사들이 겨울철에 진행되는데 맞게 전격적으로 이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하였다. 각 구역, 군송배전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력갱생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수많은 변전설비들을 개조하고 배전선로들을 정비보수하면서 성과를 부단히 확대해나가고있다.

부기사장: 올해 2월까지 룡성구역과 은정구역에서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전부 끝났으며 강남군의 기본변전소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도 마무리되였다.

다른 구역들에서도 현실조건에 맞게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올해계획된 량의 80%에 달하는 배전선로들의 전압단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 끝났다.

이와 함께 고압전동기들에 대한 기술개조사업도 적극 추진되고있다.

주변구역들의 송배전전압단계를 높이는 사업이 결속되여 얻게 되는 전력예비는 웬만한 중소형발전소의 전력생산량과 맞먹는다.

우리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경제의 생명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순간도 잊지 않고 생산된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속있게, 보다 강도높이 벌려나감으로써 오늘의 경제건설대진군에 활력을 더해주겠다.

본사기자 최영조

힘있는 사상공세는 결사관철의 투사들을 키운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 이것이 당에 대한 충정의 가장 뚜렷한 표시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의 정당성을 신념으로 간직하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에 떨쳐나선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 일군들과 어로공, 종업원들의 기세가 만만치 않다. 지난 5월말까지 배수리를 완전히 끝내고 6월에는 먼바다어로전에 진입하였으며 2호부두를 비롯한 여러 대상의 개건공사와 《황금해》호계렬의 배무이, 수산물생산에서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성과의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대중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로 키우기 위한 련합기업소당위원회의 참신하고도 힘있는 사상공세에 있다.

우리 수령님들께서 지켜보신다!

뚜렷한 종자와 중심이 있는 작전이라야 훌륭한 결실을 맺을수 있다.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정치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려 온 나라가 당이 제시한 새로운 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커다란 흥분속에 접하던 그때 당위원회일군들은 깊은 사색에 잠기였다.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에로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사상공세에서 당위원회가 틀어쥐어야 할 종자는 무엇인가.

김형범당위원장은 이제는 거의 통달하다싶이 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말씀내용을 다시금 새겨보았다.

신포원양수산련합기업소에 찾아온것은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곳 기업소가 사회수산부문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일군들과 어로공, 종업원들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로 키워야 한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이 심장을 울리였다.

십여차례나 찾고찾으시며 련합기업소를 금지의 수산기지로 전변시켜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통한 교양, 바로 이것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상공세에서 우리가 틀어쥐고 나갈 종자이다.

련합기업소당위원회 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당책임일군은 이 문제에 력점을 찍었다.

이미전부터 교양거점들을 잘 꾸려놓고 사상사업에서 도적인 본보기를 창조한 경험이 있는 당위원회는 령도업적교양에 배가의 힘을 넣었다. 해당 단위와의 련계밑에 당위원회는 기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영상사진문헌들을 신포혁명사적관의 복도벽면에 새로 정중히 모심으로써 참관의 실효를 높이게 하였다.

연혁소개실을 통한 교양도 보다 방법론있게 짜고들었다.

이전에는 단위별로 근로자들이 연혁소개실 전반을 돌아보는 식으로 참관을 진행해왔었다. 이렇게 되니 기업소의 발전력사에 깃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내용을 포괄적으로는 인식시킬수 있었지만 깊이 새겨주지 못하는 편향이 있었다.

참관을 통한 교양의 목적은 하나를 알아도 똑똑히 알고 실천에 구현하자는데 있다.

이로부터 당위원회는 연혁소개반을 한개 관찰 구획으로 해설하도록 하였다. 실례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지지도를 받은 5월에는 마지막소개관 《경애하는 원수님 따라 황금해의 새 력사를 창조하며》에 대한 해설을, 6월에는 두번째 소개반 《위대한 조국수호전의 나날에》에 대한 해설을 하도록 하였다. 이렇듯 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한 결과 실효는 컸다.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가슴속에는 영광의 일터에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이 더욱 강렬해지고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적역할을 수행할 각오가 굳어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 인민 누구나 안고 사는 가장 소중한 감정이다. 절절한 그리움을 폭발시킬 때 대중의 정신력이 비상히 높아지게 된다.

당위원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을 발기한것도 바로 그때서였다.

련합기업소안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의 협의회에서 당책임일군은 자재보장, 돌격대원들에 대한 후방사업 등 구체적인 조직사업을 하였으며 걸린 문제해결에서 자신부터가 실천적모범을 보였다.

모자이크벽화때두리에 목란꽃무각장식을 하고 조명등설치를 새롭게 하도록 하는 등 위대한 수령님의 영상을 더 밝고 정중하게 모시기 위한 혁신적인 발기를 내놓은 당책임일군은 현장에서 살다싶이 하면서 전투를 지휘하였다.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노래들과 기동적인 속보발간으로 돌격대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주었다. 돌가공조에 망라된 한 돌격대원이 앓으면서도 전투현장을 떠나지 않는것을 알고는 즉시 시인민병원에 데리고가 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많은 보약제들을 마련해주어 돌격대원들을 감동시켰다. 가정에서 준비한 물자들로 후방사업을 통이 크게 들이대는 당책임일군의 뒤를 당위원회 집행위원들모두가 따라섰다.

당위원회의 치밀한 조직사업과 책임일군들의 불같은 헌신, 대중의 앙양된 열의에 의하여 전투는 불과 25일동안에 끝났다. 그리하여 먼바다에서 돌아온 어로공들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자력갱생정신과 화선나팔수들

력사적인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에서 제시된 새로운 혁명적로선에 관통되여있는 근본핵, 기본원칙은 자력갱생이다.

그러면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사상공세의 중심도 마땅히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양시키기 위한것으로 되여야 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당책임일군들의 한결같은 생각이였다.

자력갱생정신을 발양시키기 위한 사상공세에서 당위원회는 무엇을 중시하였는가.

모든 일군들이 항일유격대나 팔수들처럼 대중의 심장속에 들어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북소리를 힘차게 울리는 문제이다.

지난 5월에 진행된 당, 행정 합기업소적인 보여주기를 조직하였다.

보라. 조건이 제일 어려울 때이다. 하지만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분발하니 기한전에 배수리를 끝내지 않았는가. 제힘을 믿으면 못해낼 일이 없다. 력사의 준엄한 시련속에서 그 위력이 검증된 자력갱생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가 되자.

당위원장의 불같은 호소는 당, 행정일군들 특히 선장들과 배수리직장 일군들의 심장을 격동시켰다.

온 련합기업소에 자력갱생열풍이 휘몰아쳤다.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운동, 경험교환운동이 활발히 벌어지는 가운데 5월중에 계획했던 7척의 배수리일정이 평균 5일이나 앞당겨졌으며 각종 어구와 연유 등이 확보되였다. 련합기업소는 지난 5월말까지 집중어로전에 진입할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되였다.

당책임일군의 실천적모범은 련합기업소안의 당, 행정일군들을 분발시켰다.

다시마수확이 한창인 양식직장에 나간 당위원회 선전부위원장은 다시마말림장들에 전투적구호와 표어들을 게시하게 하는 한편 양식공들과 무릎을 마주하고 자체의 힘으로 생산을 더 늘이기 위한 방도를 진지하게 토의하였다. 그 과정에 다시마태장들의 뜰힘을 크게 한다면 큰 투자없이 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 가정들에 있는 유휴자재만 리용해도 된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다음날 련합기업소적인 강연회뒤끝에 그는 양식직장의 실태를 알려주면서 유휴자재수집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자고 일군들과 종업원들에게 호소하였다. 대중의 자강력이 남김없이 폭발되였다. 짧은 기간에 5천여개의 수지통이 확보되여 다시 마생산량을 부쩍 늘일수 있게 된것이다.

현대화공사가 한창인 신포물고기통조림공장과 2호부두개건공사장을 비롯하여 당중앙위원회 4월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는 전투장들에 나간 당위원회일군들모두가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웨치며 화선식정치사업을 맹렬히 들이댔다.

화선나팔수들의 힘있는 사상공세는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정신력을 남김없이 폭발시키는 기폭제의 작용을 하였다.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빛내이려는 자각에 뿌리내린 자력갱생정신이 심장마다에 차넘치는 이들에게 뚫지 못할 난관, 점령 못할 고지란 없었다. 전투장마다에서 혁신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였다.

보다 큰 성과는 황금해력사창조를 위한 투쟁에서 사회수산부문의 기치를 든 령도업적단위의 일군들과 종업원들답게 모두가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전위투사들로 든든히 준비되게 된것이다.

당의 새로운 혁명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아직은 첫걸음을 뗀데 불과하다.

그러나 우리는 확신한다. 당의 사상과 의지로 심장의 피를 끓이는 화선나팔수들, 불같은 당일군들이 있어 이곳 련합기업소는 언제나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선봉에서 나가리라는것을.

본사기자 김향란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빛나는 우리 인민의 영웅적투쟁(5)

일심단결의 장엄한 대하가 세차게 굽이쳐흐른 영광의 년대

새로운 기적들과 영웅적인 사변들을 수놓은 1980년대를 더듬어보며

우리 조국력사에 영원히 잊을수 없는 사변들과 승리들을 기록한 1980년대!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위대한 장군님을 따라 줄기차게 전진해온 1980년대를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단결의 년대였다고 긍지높이 말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의 부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옮기고 바다도 메우는 기적을 쉼없이 창조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주체69(1980)년 10월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가 열리였다. 위대한 단결의 년대의 장엄한 서막이라고 볼수 있는 당 제6차대회는 항일의 불길속에서 마련되고 끊임없이 공고발전되여온 우리의 일심단결의 자랑찬 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갈수 있는 튼튼한 담보를 마련한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함께 모신 대회주석단을 향하여 항일의 머리흰 로투사들도, 혁명의 2세, 3세들도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목청껏 웨친 만세의 환호성, 위대한 당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인민의 불타는 열망과 철석의 의지가 응축된 이 환호성은 우리 당의 위대성을 온 세상에 과시하며 1980년대의 한끝까지 힘있게 메아리쳤다.

《우리가 건설의 삽을 처음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날바다에 갑문을 세울수 있다고 믿은 사람들이 얼마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은 우리를 믿고 대담하게 결심하였으며 우리는 당이 결심하면 한다는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으로 20리 날바다를 길들였습니다. 당과 인민의 단결을 떠나서는 정말 우리의 그 어떤 승리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습니다.》

이것은 서해갑문을 건설하던 나날이 그리워 이곳에 자주 들리군 한다는 한 건설자의 말이다. 수심m깊이의 20리 날바다에, 그것도 밀썰물의 차이가 대단히 크고 물살이 빠른 서해에 갑문을 일떠세운다는것은 실로 어려운 일이였다. 하지만 조국의 부강번영과 후손만대의 행복을 위하여 간고분투해서라도 갑문을 건설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였고 그 뜻을 실천으로 받든 우리 군인건설자들과 인민들이였다.

주체70(1981)년 5월 22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남포갑문(당시)의 자리를 확정해주시기 위하여 배에 오르시였다.

오랜 시간 달리는 배우에 계시며 갑문위치를 확정해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군들에게 20리에 달하는 날바다를 막아 대자연개조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남포갑문은 우리 나라 력사에 일찌기 없는 매우 어렵고 방대한것이지만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을 위한 성스러운 사업인것만큼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힘주어 교시하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하시기 위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공사전반을 지도하시면서 여러차례 건설현장에 나오시여 공사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5월 22일》, 건설자들은 자기들의 기발에 그 날자를 박아넣었다. 그 기발은 갈매기 울어예는 바다기슭에 건설의 첫삽을 박던 때부터 건설자들의 머리우에서 나붓꼈다. 기발은 언제나 대오의 앞장에서 휘날렸다.

일머도 낯설고 경험도 없었지만 공사 첫날부터 건설자들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확고한 신념과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영웅적투쟁을 벌리였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리수복영웅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해 청춘의 심장을 바쳤다. 오늘 우리의 투쟁은 당과 수령의 권위를 옹위하고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보성없는 전쟁이다. 우리 인민을 더 잘살게 하려는 당과 수령의 뜻을 꽃피우는데 우리 청춘의 심장을 불태우지 않는다면 그 심장을 두었다 무엇하겠는가!》

건설자들은 바로 이런 신념, 이런 의지를 안고 세찬 물속에 뛰여들어 고층이빠트와 같은 수천t 합형부재의 머진 불구멍을 몸으로 막고 《앞으로!》의 구멍을 헤치며 부재를 전진시켰다.

몇분동안의 밀썰물의 멈춤시간을 리용하여 최종마감막이 대형합형부재를 내려앉히는 긴장한 시각에 합형부재의 한쪽 물구멍이 터지지 않았을 때에는 끊어진 도폭선을 서로서로의 두팔로 이어 폭파를 보장하여 부재를 가라앉혔다.

건설자들의 용감한 투쟁에 감동되여 처녀방송원도 《설레이는 바다여! 용맹한 전사여! 월미도의 영웅들같은 갑문건설용사들이여!》 하고 웨치다가 수십t 콩크리트부재에 작은 어깨를 들이밀었다는 여기 전투장에는 영웅이 따로 없었다. 건설자들모두가 사나운 바다를 정복하는 어려운 전쟁에서 위훈을 세우고 승리한 영웅들이였다.

지금은 물속에 잠겨 보이지 않지만 깊이가 수십m 되는 20리 날바다를 가로막은 그 하나하나의 구조물에는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라는 불타는 신념을 안고 기적을 창조한 건설자들의 충정과 애국의 마음이 뜨겁게 스며있다.

건설자들만이 아니였다.

건설의 나날에 전국각지의 청년들과 사무원들,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 대학생들과 가정부인들, 이름도 주소도 모르고 나이와 직업도 각각인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전투장을 찾아 창조의 구슬땀을 흘리였으며 지성어린 편지들과 지원물자들을 보내였다.

세 자식을 갑문건설장에 보낸것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60이 넘은 나이에 전투장에 찾아와서 몇년을 하루처럼 건설자들의 뒤바라지를 해주고 식량일을 도와준 《삼지연 3형제》의 아버지, 어머니와 수십마리의 돼지를 길러 건설자들에게 보내준 《청원의 어머니》…

진정 새로운 진군속도-80년대속도를 창조하며 세계적인 대건설공사를 우리의 설계, 우리의 기술, 우리의 설비와 자재, 우리의 힘으로 짧은 기간에 성과적으로 완공한 갑문건설자들의 영웅적투쟁은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거대한 잠재력을 힘있게 시위하였으며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키기 위하여 떨쳐나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무한한 용기를 안겨주었다.

전후 천리마대고조를 일으켰던 그 기세, 그 기백으로 80년대속도를 창조할것을 결의하고 전국의 로동계급에게 호소한 김철의 로동계급은 강철증산으로 우리 당을 받들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안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강철직장의 용해공들은 땀을 흘린것만큼 강철이 더 나온다고 하면서 증산의 예비를 전로의 수명을 연장하고 로의 만부하, 만가동을 보장하며 출강회수를 늘이는데서 찾았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지금 우리를 80년대속도창조의 앞장에 내세워주고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기존공식에 매달릴것이 아니라 우리 당의 정책을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강철이 많아야 나라가 흥성거리고 당 제6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도 수행할수 있습니다.》

《우리 강철로동계급의 보람이야 강철을 더 많이 뽑아내는데 있고 우리의 영예와 위훈도 거기에서 빛나는것이 아닙니까.》

용해공들의 심장에서 우러나온 이 목소리에는 강철로 당을 받들던 전후 천리마대고조시기처럼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 당만을 따르려는 김철로동계급의 신념이 비껴있었다.

용해공들은 전로의 수명을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면서 로조작을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설비관리, 기술관리를 알뜰히 하면서 용해시간을 최대한으로 줄여 출강회수를 종전보다 3-4회 더 늘임으로써 매일 계획을 1.2배이상으로, 최고 1.5배까지 넘쳐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용광로와 전로들, 압연기들에서 이전의 기준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록들이 창조되는 속에 김철의 로동계급은 1985년 한해동안에만도 6만에 달하는 언로를 절약하면서 전해보다 3만 수천톤의 선철, 4만톤의 강철, 4만 천여톤의 압연강재를 더 생산하였다.

온 나라가 공화국창건 35돐을 맞으며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고있던 때 굴지의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 검덕에서는 대규모의 제3선광장을 불과 1년사이에 일떠세우는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였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5~10년이상 걸려야 한다는것을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한 검덕의 제3선광장은 우리 당이 펼친 80년대속도창조운동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건설자들의 위훈에 대하여 당시 《로동신문》에는 이렇게 실렸다.

《…1년! 이것은 이곳 선광장건설자들이 보통 말하는 건설기간이다. 그런데 이 건설기간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시운전기간, 수만㎥의 구내정리와 수㎞의 고지대의 도로확장공사기간 등이 다 포함되여있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곳 건설자들이 수만㎥의 건정을 가진 우람찬 선광장건물들을 일떠세우고 수천대의 기계설비들을 조립하여 오늘과 같은 대선광기지를 건설한 순 공사기간은 8~10개월밖에 안된다. 동서고금의 설계력사를 더듬어보면 제3선광장과 같은 규모와 능력을 가진 건설물을 일떠세우자면 설계만 해도 최대한 빨리 하는것으로 보아서 1년이상 걸리는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는 큰 선광장들의 건설력력을 들춰보아도 다 그렇다. 그런데 우리 건설자들은 설계만 하자고 하여도 빳빳한 바로 이 기간에 세계적규모의 대선광장을 건설하고 시운전을 보장하였으며 당장에 정광을 생산할수 있게, 완전무결하게 건설공사를 해제했다.》

이런 기적이 어찌 검덕땅에서만 창조되였겠는가.

룡성의 로동계급은 1만프레스를 제작하였고 락원의 로동계급은 현대적인 대형산소분리기생산에서 성공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커다란 기쁨을 드리였다.

대형산소분리기생산과정에는 락원의 로동계급이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자진하여 선택하고 자력갱생, 간고분투한 이야기가 특별한 자랑으로 빛나고있다.

락원의 로동계급앞에는 두 길이 놓여있었다. 하나는 우에서 막대한 자재를 해결받고 일부 자재를 남에게 의존하는 길이였고 다른 하나는 우에다 손을 내밀거나 남에게 의존함이 없이 우리에게 있는것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내는 길이였다.

현대공업기술의 첨단에로 비약하는 중요한 과제였으므로 락원이 첫번째 길을 택했다고 하여 나무랄 사람은 없었다. 사실 그 길을 권고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그때 락원의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는 이런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쉬운 길이 빠른 길이 아니라 힘들더라도 자력갱생, 간고분투하는 길이 빠른 길이다. 난관이 두려워 제힘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락원의 로동계급이겠는가. 쉼없이 전진하고 천가지, 만가지 난관이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우리 힘으로, 우리 식대로 관철하는것이 락원로동계급의 본때이다.》

락원의 로동계급과 기술자들, 일군들은 이런 불같은 심정으로 쉽게 명예와 물다발이 차례질수 있는 길이 아니라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난관을 뚫고나가는 어려운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한번에 안되면 열번, 열번 해서 안되면 백번, 천번을 거듭하는 결사의 투쟁을 벌렸다.

락원의 로동계급이 자체로 산소분리기를 만들어내는 길을 개척하였을 때 우리의 청년전위들은 수수천년 백두의 장설과 원시림의 해묵은 이끼에 파묻혀 태고의 정적을 간직해오던 이 나라 북변의 협산준령들, 너무도 산세험하여 좀체로 기차길을 열어주려고 하지 않던 천만산악들에 차굴을 뚫고 철다리를 이어 조국의 새 동맥으로 개통렬차가 지나가게 하였다.

청년돌격대원들과 철도건설자들은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우리 당의 원대한 구상을 하루빨리 실현하려는 혁명적열정으로 강추위와 무더위, 세차게 쏟아지는 눈비를 용감하게 이겨내고 3년 남짓한 기간에 250여리 철길에 수십개의 차굴과 철다리, 수백개의 구조물, 산간지대의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 아담한 10여개의 역사들을 훌륭히 건설하였다.

북부철길건설자들이 북부산악지대에 천지개벽의 력사를 펼치였다면 수도건설자들은 광복거리와 5월1일경기장을 비롯한 260여개 중요대상건설에서 주체조선의 국력과 우리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제2의 평양속도를 창조하였다.

참으로 1980년대는 우리 당의 령도밑에 그 폭과 규모, 내용과 형식, 질과 속도에서 동서고금의 그 어느 력사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대건설의 전성기가 펼쳐진 자랑스러운 년대였다.

당과 수령의 령도따라 위훈과 비약으로 수놓아온 1980년대는 태양을 따르는 해바라기와 같이, 사시장철 푸르른 소나무와도 같이 변함을 모르는 일편단심으로 당과 수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새 인간의 대무대가 자라난 년대로 빛나고있다.

《모두다 80년대의 김혁, 차광수가 되자!》, 우리 당이 높이 추켜든 이 혁명적인 구호밑에 일찌기 우리 혁명의 려명기에 위대한 한별동지를 높이 모시고 싸운 혁명선렬들의 그 숭고한 정신이 이 땅에 나래치는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체형의 붉은 피만이 세차게 끓어번지는 불굴의 혁명가로 자라났다.

심한 병으로 몸을 가누기조차 어려운 조건에서도 당에서 준 과업을 기어이 관철할 결심을 품고 장기숙에 천막을 치고 다리건설전투를 지휘한 강계시의 한 당일군, 위급한 시각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여 귀중한 혁명동지들과 제란장을 구원한 안주지구탄광련합기업소 신리탄광 제란소대장이였던 전제봉동무…

진정 1980년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아래 우리 나라에서 인간의 고결함과 아름다움,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정신도덕적풍모가 활짝 꽃핀 정신적앙양기, 도덕적개화기이기도 하였다.

참으로 우리 수령, 우리 당, 우리 인민의 위대성을 누리에 과시한 자랑찬 년대이며 천만군민이 당과 수령의 두리에 철통같이 단결될 때 력사의 온갖 난관과 시련을 맞받아뚫고 광명한 미래에로의 진군을 확신성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다는것을 힘있게 확증한 1980년대였다.

실생활체험을 통하여 우리 수령, 우리 당이 위대하고 우리가 가는 주체의 한길, 사회주의길이 천만번 정당함을 심장으로 체득한 우리 인민은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들을 변함없이 높이 받들어모시고 당을 따라 혁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갈것이다.

본사기자 김 진 욱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 개막

전승컵 전국태권도강자경기대회가 개막되였다.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5돐을 맞으며 진행되는 이번 경기대회에서는 각급 태권도선수단들과 조선체육대학, 중앙체육학원에서 선발된 우수한 선수들이 태권도와 바둑종목의 경기들에서 승부를 겨루게 된다.

개막식이 20일 태권도전당에서 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와 내각사무장 김영호동지,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서기장 김춘식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체육인들, 시내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조선태권도위원회 위원장 김경호동지가 개막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태권도선수들이 국제경기들에서 련전련승하고 최강자의 지위를 확고히 고수함으로써 주체조선의 기상과 태권도모국의 위용을 온 세상에 떨치고있는데 대하여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수들이 이번 경기대회에서 우리 식의 우월한 경기전법, 경기방식들을 적극 활용하여 민족의 슬기와 기상이 깃들어있는 정통무도의 우수성과 위력, 발전면모를 힘있게 과시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조선태권도위원회 태권도선수단 선수들의 시범출연이 있었다.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 도착

김양승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조국방문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일행 귀국

이고리 모르굴로브 로씨야련방 외무성 부상과 일행이 2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외무성 일군과 주조 로씨야련방 림시대리대사가 전송하였다.

체류기간 이고리 모르굴로브 부상과 일행은 리용호외무상을 의례방문하고 최선희, 신홍철 외무성 부상들과 각각 회담을 진행하였다.

담화와 회담들에서는 조로쌍무관계와 조선반도정화체제구축을 비롯하여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깊이있는 의견이 교환되였다.

필리핀민주주의인민권력당대표단 귀국

루트가르도 바르보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필리핀민주주의인민권력당대표단이 20일 귀국하였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류명선동지가 전송하였다.

웰남사회과학원대표단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 참관

팜 반 득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웰남사회과학원대표단이 김일성종합대학 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대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으로 강화발전시켜주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사적관의 여러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단장은 감상록에 조선은 앞으로도 교육중시, 과학중시사상으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대학이 인재육성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고 썼다.

대표단은 또한 주체사상탑과 개선문, 평양교원대학 등을 참관하였다.

뉴질랜드적십자사 위원장일행
여러곳 참관

제니퍼 엔 맥마흔 뉴질랜드적십자사 위원장과 일행이 주체사상탑을 참관하였다.

손님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시여 인류가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사상리론업적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탑신과 군상들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탑전망대에 올라 평양시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위원장은 감상록에 글을 남기였다.

손님들은 또한 개선문 등을 참관하였으며 평안남도 은산군의 협조대상들을 돌아보았다.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
비전향장기수와 상봉

최인아 재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이 20일 불굴의 통일애국투사인 비전향장기수 홍명기동지와 상봉하였다.

홍명기동지는 수십년세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모진 옥중고초를 이겨내며 혁명적지조를 꿋꿋이 지켜낼수 있은것은 당과 수령을 따르고 받드는 길에 전사의 값높은 삶이 있다는 진리를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간직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혁명적의리와 동지애를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따뜻한 품속에서 비전향장기수들이 인생의 영광을 누리고있는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최인아단장은 수령과 조국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굴함없이 싸운 통일애국투사들의 투쟁정신에서 큰 고무를 받았다고 하면서 총련의 새 세대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필승의 신념을 안고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모임에서는 예술소품공연이 있었다.

다음주에 진행될 체육경기들

22일(일요일) 오전 청춘거리수영경기관에서 전승컵체육경기대회 수중체조무용경기가 있게 된다.

다음주에 진행되는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부류축구련맹전과 2017년-201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녀자 1부류축구련맹전일정은 다음과 같다.

22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혜 봉:선 봉
월미도:평 양
압록강체육단에서
남자 압록강:려 명
4.25체육단에서
녀자 4.25:갈매기
월미도축구단에서
녀자 월미도:내고향
평양체육단에서
녀자 평 양:봉화산

25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기관차:압록강

27일 압록강체육단에서
녀자 압록강:내고향

28일 김일성경기장에서
남자 기관차:4.25
경공업성:려명수
혜 봉:소백수

【조선중앙통신】

해양체육활동 활발

7, 8월해양체육월간을 맞으며 평양시안의 학교들에서 해양체육활동을 활발히 벌리고있다.

시청년동맹위원회에서는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나라에서 해양체육활동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학생들이 이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시안의 초급중학교들에서 학생들을 해양국의 주인공들로 튼튼히 준비시키고있다.

해마다 진행되는 정일봉상 전국청소년학생체육경기대회 수영경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만경대구역 팔골초급중학교와 중구역 동흥초급중학교에서 수영열풍을 일으키고있다.

학교들에서는 수영장을 잘 관리운영하면서 헤염기술을 원리적으로 알심있게 인식시켜 학생들이 그것을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만들도록 수영교육의 질을 높이고있다. 또한 학생들이 여러가지 헤염의 묘리와 동작들을 파악한데 기초하여 어떤 조건에서도 능숙하게 수영을 할수 있는 강의한 의지를 키워나가도록 하고있다.

대성구역 려명초급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영기재들을 새로 갖추고 각이한 수영동작들을 보여주는 직관물들을 만들어 교육에 리용하고있다.

시안의 소학교들에서도 수영교육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평양제4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부력기재를 리용하여 물에 뜨기, 숨쉬기, 팔젓기 등 수영기초동작들을 익히도록 하면서 학년별, 학급반별수영경기들을 자주 조직하고있다. 수영장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것을 어김없이 실현하고있는 대성구역 려명소학교에서는 경기를 통하여 학생들의 수영수준을 한계단 높여나가고있다. 이밖에 선교구역 남신소학교, 보통강구역 세거리소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들에서도 해양체육활동에 큰 힘을 넣고있다.

【조선중앙통신】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순천구두공장에 가면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단위가 있다. 제생작업반이다. 여기에는 10여년을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뜨거운 인정미를 지니고 작업반원들을 위해 헌신한 반장 김철호동무의 진정이 깃들어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어려있는 일터에서 일하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공장에 제대배낭을 풀어놓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맡은 일에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다.

작업반이 해마다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단위로 자랑떨치고있는것은 그의 이 신작희과 뜨거운 인정미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그는 언제나 사랑과 정으로 작업반원들을 이끌어주고있다.

작업반원들의 생활에 늘 관심을 돌리고 제기되는 문제들을 풀어주고있다. 그의 뜨거운 인정미로 하여 작업반에서는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이 높이 발휘되고있으며 그것은 그대로 생산실적으로 이어지고있다.

그는 언제나 앞제를 메고 대중을 이끌고있다.

공장의 탈류기개건사업이 진행될 때에도 제기되는 자재와 부속품들을 솔선 맡아 해결하였으며 가치있는 기술혁신안을 내놓아 설비현대화에 한몫 단단히 하였다.

시인민회의 대의원인 김철호동무는 오늘도 당의 믿음과 사랑에 실천으로 보답할 한마음안고 더 높은 목표밑에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장 정 숙

붉은 당기앞에 다진 맹세를 지켜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빛내이자

로동당원이란 부름이 그처럼 값높은것은

가슴에 당원증을 품었다고 참된 당원이라고 자부할수 있는것은 아니다. 당생활년한이 오래다고 조선로동당원이란 부름앞에 떳떳이 나설수 있는것은 더욱 아니다.

참된 당원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 물음에 대답을 주는 우리의 수많은 당원들중에는 삼천군 탈천리의 한 로당원도 있다. 그가 바로 20여년세월 애국의 피와 땀으로 명산의 푸른 숲을 펼치고 굳건히 지켜온 조정현동무이다.

누구도 조정현동무에게 산림순시원일을 하라고 한 사람은 없었다. 그 일을 그만둔다고 탓할 사람도 없었다. 하다면 과연 무엇이 오랜 병환과 걸음걸음 따라서는 시련속에서도 변함없이 산림을 가꾸어 푸른 숲이 무성하게 하였는가.

나는 조선로동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이였다.

당원,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당정책관철의 선봉투사라는 말이였다.

당의 부름앞에 제 하나의 편안만을 생각하면서 몸을 사린다면 그런 사람은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있다 해도 죽은 당원이나 다름없다는것이 조정현동무의 굽힘없는 신조였다.

산 당원인가? 죽은 당원인가?

조정현동무는 삶의 순간순간 이 물음앞에 추호도 변치 않을 당적신념으로 떳떳이 대답하며 살아왔다.

어찌 조정현동무뿐이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은 언제나 당원이라는 높은 자각을 안고 혁명과업수행에서 군중의 모범이 되고 군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우리 혁명의 년대기마다에서 우리의 조선로동당원들은 선봉투사의 값높은 그 영예를 목숨처럼 소중히 간직하고 전진하는 대오의 기발이 되여, 삶과 투쟁의 거울이 되여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왔다.

오늘도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소중히 간직되여있는 불굴의 육탄용사 강호영영웅을 비롯한 전화의 영웅전사들, 락원의 10명 당원들과 천리마대고조시기의 유명무명의 혁신자들, 조선중앙통신사 5국 2세포 당원들과 박용철 8형제군관들, 구봉령의 김성녀로인을 비롯하여 수령결사옹위,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선봉투사가 되고 새로운 대고조의 불씨가 된 우리의 미더운 조선로동당원들.

당과 수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어 류례없이 가렬처절했던 지난 조국해방전쟁에서와 준엄했던 전후복구건설에서, 전인미답의 사회주의건설에서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고 오늘에는 그처럼 보무당당히 세상사람들의 경탄을 자아내며 만리마대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선두에는 언제나 조선로동당원들이 서있다.

조선로동당원들은 인민대중속에서 선발된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고 시대와 혁명이 안겨주는 영예가운데서 가장 고귀한 영예, 칭호가운데서 가장 값높은 칭호를 지닌 선봉투사들이다.

조선로동당원이란 부름이 그처럼 값높은것은 선봉투사의 영예를 빛내여가는 당원의 풍모와 성격적특질이 특출하기때문이다. 우리 당의 력사는 그 어떤 역경과 환경에서도 대중의 앞장에서 당과 수령을 결사옹위하고 불굴의 헌신성과 무비의 희생성을 높이 발휘하여 당정책을 관철하여온 조선로동당원들의 자랑찬 투쟁력사이기도 하다.

조선로동당원들의 충실성의 력사와 전통은 격동적인 오늘의 위대한 김정은시대에 더욱 찬연히 빛나고있다.

하나의 거대한 불도가니가 되여 세차게 끓어번지는 단천전역, 어느 전투장에 가보아도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단천발전소건설은 수령사수전, 수령보위전!》, 《굴진속도는 경애하는 원수님께로 달리는 우리 마음의 속도》, 《당이 바라는 높이를 실천의 목표로》, 《이 한몸 천조각, 만조각이 되여서라도 기어이 완공의 축포를 울리자》라는 힘있는 글발들이 심장을 쾅쾅 울리여주는 속에 물길굴공사와 언제공사, 도로공사, 발전소건설이 땅속과 땅우에서 동시에 립체적으로 벌어지는 광활한 전역이다.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이곳에서는 조국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녕원발전소와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세인을 놀래운 기적을 창조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린 인민군장병들, 사회주의건설의 여러 전구들에서 혁혁한 전과를 기록한 려명신화창조의 주인공들과 청천강의 용사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부대들이 사회주의경쟁열풍을 맹렬하게 일으켜나가고있다.

단천전역이 쾅쾅 울리도록 총돌격전의 함성드높이 용기백배하여 다그치는 돌격전의 선두에는 언제나 미더운 조선로동당원들이 휘날리는 기발마냥 서있다.

위대한 당이 가리키는 경제건설대진군에서 용감무쌍한 선봉투사의 고귀한 영예를 과감한 실천투쟁과 순결한 량심으로 빛내여가는 조선로동당원들.

당원이란 결코 명예가 아니다. 당의 사상과 령도를 받드는 길이라면 출선 앞장에서 뛰여들어야 하는 사람이 당원이고 목숨도 바쳐야 하는 위급한 순간에 주저없이 한몸 서슴없이 내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당원이라는것을 눈물겨운 헌신과 영웅적투쟁으로 보여주는것이 단천전역의 당원들만이랴.

백두산기슭 삼지연전역과 동해기슭 명사십리전역에서 그리고 김철과 황철, 강선 등 철의 기지들에서, 이름난 탄전의 지하막장들과 증산의 동음드높은 전력생산기지들, 황금산, 황금해, 황금벌의 노래높은 조국땅 이르는 곳마다에서 조선로동당원들은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선봉투사의 영예를 값높은 삶과 투쟁으로 빛내여가고있다.

선봉투사, 여기에 조선로동당원의 값높은 삶이 있다.

이것이 바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천겹만겹의 대오를 이루고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결사로 받들어가는 열혈의 인간들이며 혁명의 선봉투사들인 미더운 조선로동당원들이 자신들의 실생활과 투쟁으로 다시금 심장깊이 새기는 진리이다.

본사기자 김치곤

《당원들 앞으로!》

◇ 《당원들 앞으로!》라는 숭고한 부름이 다시금 엄숙히 울리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경제건설대진군이 힘차게 벌어지는 지금 조선로동당의 기상과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그 누구보다도 당원들앞에 나서고있다.

당과 인민의 크나큰 기대를 안고 전국각지의 수많은 당원들이 일시에 떨쳐일어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서 힘차게 나아가고있다. 단천발전소건설장을 비롯한 당의 웅대한 구상이 펼쳐지는 사회주의건설장들과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 현실로 꽃피는 방방곡곡의 일터마다에서 로동당원들이 터치는 수령결사옹위의 함성드높고 창조와 건설의 발구름소리 우렁차다.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우리 조국력사에 특기할 새로운 장이 펼쳐지는 이 시각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은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은 자기들의 책임과 역할을 다시금 가다듬고있다.

◇ 당원들이 투쟁의 불씨가 되고 선봉투사가 될 때 혁명의 승리가 앞당겨진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당의 로선과 정책, 당의 사상과 의도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선봉투사입니다.》

우리 혁명은 하나의 합법칙성을 가지고 발전하며 승승장구해왔다.

조국앞에 어렵고 중대한 과업이 나설 때마다 당은 당원들을 불러일으켜 어려운 고비를 넘고 헤쳤으며 화를 복으로 전환시켰다.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판국적이고 무거운 력사의 과제들을 이 땅의 당원들은 언제나 책임적으로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항일의 첫 당조직성원들은 수적으로 많지 않았지만 익측도 후방도 없는 무장투쟁의 골간이 되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데 커다란 공헌을 하였으며 가렬한 전화의 나날 가슴에 붉은 당원증을 간직한 인민군전사들은 불타는 고지에서 당세포총회를 열고 목숨을 바쳐서라도 조국의 촌토를 사수하리라는 맹세를 다지고 남먼저 돌격전에로 나아감으로써 조국해방전쟁의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는데 기여하였다.

당원들이 대오의 앞장에 서면 전체 인민이 따라서고 당원들이 애국의 불씨가 되여 활화산같은 불길을 일으키면 거대한 변혁이 일어난다는것이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이며 고귀한 진리이다.

◇ 당원들은 당의 믿음과 기대를 심장에 새겨안고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 자각적인 혁명투사, 선봉투사가 되여야 한다.

당원들이 먼저 떨쳐일어나면 막혔던 길도 열리고 당원들이 투쟁의 불씨가 되여 타번지면 상상 못할 기적과 혁신이 창조된다는것을 언제나 심장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당원들은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자기 령도자만을 믿고 따르는 일편단심, 백옥같은 충정을 가슴깊이 간직하여야 하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사상과 로선, 당정책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 옹호자가 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이 회의장에서 만세를 부르는것보다 실천투쟁의 앞장에 서서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글타글 애쓰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에 충실한 사람이라는것을 명심하고 한가지라도 당에 보탬을 주기 위하여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야 한다.

당원들은 당앞에 지닌 본분과 혁명적의리를 자각하고 당이 내세운 로선과 정책관철에서 대중의 앞장에 서야 한다.

온 나라 전체 당원들이 영원히 당과 생사운명을 같이하며 주체혁명위업완성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야 한다.

참된 탄부의 량심

2.8직동청년탄광 1갱의 전투원들

수천척지하막장마다에서 위훈을 세워가고있는 탄전의 미더운 척후병들속에는 2.8직동청년탄광 1갱 당원들도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애국주의를 체질화하고 실천에 철저히 구현하여 부강하고 문명한 사회주의조국을 일떠세우는 보람찬 투쟁에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난 5월말 탄광에서 진행된 협의회에 참가하였던 갱장 박영수동무와 분초급당일군인 김광윤동무는 밤이 깊었지만 나란히 갱으로 향하는 인차에 올랐다.

《이 속도로 나가면 갱의 월생산계획은 문제없겠습니다. 하지만 직동의 탄부들인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수행하는것으로 만족할수 있겠습니까.》

갱장은 분초급당일군의 이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였다.

이윽고 채탄막장에 도착한 그들은 앞으로 남은 닷새동안에 매일 수십t의 석탄을 증산할것을 모두에게 호소하였다. 온 막장이 열렬히 호응해나섰다. 제일먼저 자리를 차고 일어선 사람은 제대군인당원인 채탄1중대 중대장이였다.

《우리 중대가 증산투쟁의 앞장에 서겠습니다.》

그에 뒤질세라 채탄4중대 중대장도 흥분된 심정을 터놓았다.

《우리 중대도 문제없습니다. 어서 돌격구령을 내려주십시오.》

즉시 전투가 벌어졌다.

일생산계획에 수십t의 석탄을 증산한다는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였다. 사실 갱의 현존생산조건으로는 계획을 수행하는것만도 성과라고 할수 있었다.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였지만 그들은 용감히 뚫고나갔다.

굴진공들의 투쟁기세 또한 만만치 않았다.

굴진소대의 굴진공들은 앞선 착암방법과 발파방법을 받아들여 하루 굴진계획을 넘쳐 수행하기 위해 전투를 벌려나갔다.

그러던 어느날 막장을 울리던 착암기소리가 뜻밖의 고장으로 갑자기 멎게 되였다.

순간 막장안은 숨을 죽인듯 고요하였다.

이때 현장을 지휘하던 분초급당일군의 목소리가 막장을 울리였다.

《우리 당원들이 있는 한 절대로 굴진을 멈출수 없소.》

그는 함마와 정대를 손에 들고 나섰다.

굴진공들도 호응하며 따라나섰다.

이어 쩡쩡- 함마소리가 막장안에 울려퍼졌다.

그들의 심장마다에는 당앞에 다진 맹세는 실천으로 지켜야 한다는 철석의 신념, 당에서 맡겨준 혁명초소를 조국의 한 전호와 같이 지켜갈 각오가 차넘치고있었다.

전투의 나날은 탄부의 량심을 조국앞에 검증받는 나날이기도 하였다.

한줌의 석탄이라도 귀중히 여기는 탄부들의 량심은 얼마나 깨끗한가.

설비소대, 운반중대를 비롯한 갱의 모든 전투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교대를 마치면 석탄수집에 떨쳐나섰다. 그 앞장에는 언제나 당원들이 서있었다.

가족들도 한줌의 석탄이라도 더 수집하기 위해 매일 갱과 주변을 돌면서 바닥에 흘린 석탄을 모았다.

이렇게 모은 한줌한줌의 석탄에 비낀 애국의 마음을 어찌 수량으로 젤수 있으랴.

드디여 많은 석탄을 증산하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이것은 어머니당을 받들어 부강조국의 초석으로 살려는 숭고한 자각을 안고 떨쳐나선 1갱 전투원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이 안아온 자랑찬 성과이다.

누가 보건말건 지하막장에서 조국의 전진에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증산투쟁을 벌려나가는 이런 미더운 전초병들이 있어 나라의 석탄산이 높이 쌓아지는것이 아니랴.

본사기자 신철

단상

선봉투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은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에 대한 절대적인 지지자, 옹호자가 되여야 하며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선봉투사가 되여야 합니다.》

얼마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찾았던 우리는 피묻은 당원증들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원쑤의 총탄에 찢기고 포화에 그슬린 피묻은 당원증들가운데는 수여받은지 며칠만에 전사한 당원의 당원증도 있었다.

전화의 당원들이 남기고 간 절절한 부탁이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은 피묻은 당원증들.

《당원들 앞으로!》를 웨치며 탄알이 비발치는 적진을 향하여 맨 앞장에서 달려나갈 때 우리 당원들의 가슴속에서 세차게 맥동친것은 과연 무엇이였던가.

피묻은 당원증들은 수십년세월이 흐른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끊임없이 전하여주는것인가.

지금으로부터 수십년전 위대한 수령님께서 준엄했던 전화의 나날을 회억하시며 로동당원들이 어려운 전투때마다 앞장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용감히 싸웠기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수 있었다고 뜨겁게 하신 교시는 오늘도 우리 수백만 당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준다.

불타는 고지우에서 당을 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담은 맹세문을 쓸것을 제일먼저 제기한것도 로동당원들이였으며 공화국기발을 휘날리며 진격의 맨 앞장에 서서 달려나간것도 다름아닌 로동당원들이였다.

숨이 지는 마지막순간에도 자기의 당원증과 당비를 당중앙위원회에 전하여달라고 부탁하던 한 로동당원의 절절한 목소리도 울리여온다.

전후의 재더미에서 천리마가 날아오를 때 진군의 앞장에 선것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였고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앞장에서 헤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든든한 도약대를 마련한것도 우리 당원들이였다.

《물불을 가리랴 당의 부름에!》, 이것이 우리 당원들이 혁명투쟁의 장구한 로정에서 언제나 앞장에서 높이 들었던 글발이였다.

오늘 사회주의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로선관철을 위한 투쟁의 맨 앞장에도 다름아닌 우리 당원들이 서있지 않은가.

하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에게 저 피묻은 당원증들이 전하여주는것은 과연 무엇인가.

전화의 나날 기발들고 나가다 쓰러지면서도 전후의 승리를 당부한 전화의 당원들은 오늘도 이렇게 웨치고있다.

당원들이여, 당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언제나 선봉투사가 되라!

그렇다.

내 나라, 내 조국을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을 위하여 한목숨 서슴없이 바치였으며 오늘도 당정책관철에서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헌신적으로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수많은 당원들의 모습은 수천수만이여도 그들의 이름은 하나이다.

선봉투사!

피묻은 당원증을 마음속에 다시금 안아보며 우리는 생각하였다.

이 당원증을 한번 가슴에 안은 당원은 영원히 선봉투사로 삶을 빛내이리라! 조국의 기억속에 살리라!

유광진

참신한 정치사업은 생산자대중을 위훈창조에로 불러일으킨다.
—평양주철관공장에서—
본사기자 찍음

높은 책임감을 안고

정주시 신봉협동농장 제7작업반장 리윤식동무는 높은 알곡생산성과로 당을 받들기 위해 애써 노력하고있다.

지력을 높여야 알곡생산을 늘일수 있다는것을 깊이 명심한 그가 소석회생산을 위해 걸은 길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그는 질좋은 거름을 생산하여 지력을 높일데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작업반원들을 발동하여 포전들을 기름지게 걸구어나갔다.

작업반원들은 늘 포전에서 살다싶이 하며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하기 위해 아글타글 노력하고있는 리윤식동무를 실농군작업반장이라고 부르고있다.

농사의 주인은 농민들이며 농업생산장성의 열쇠는 농업근로자들의 생산적열의를 높이는데 있다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말씀을 가슴깊이 새기고 그는 항상 나라의 쌀독을 책임진 주인다운 립장에서 모든 농사일을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과학적으로, 알뜰하고 깐지게 해나가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치고있다.

리윤식동무는 사회주의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참호에 서있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공화국창건 일흔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알곡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할 열의밑에 오늘도 많은 농사일에서 날마다 실적을 올리고있다.

로농통신원 림영남

고결한 한생이 비낀 최후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남포시려단 3대대 당세포위원장이였던 박홍만동무에 대한 이야기

혁명사적지건설지도국 남포시려단 3대대 당세포위원장이였던 박홍만동무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는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건설장에서 위기일발의 순간에 한몸을 서슴없이 내대여 동지들을 구원하고 장렬하게 희생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간의 삶이 보람있는것으로 되자면 영생하는 집단을 위하여 무엇인가 기여하는바가 있고 남기는것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5월말 어느날, 그날의 점심시간은 유쾌하게 흘러갔다. 식사를 끝낸 돌격대원들은 자기들의 일터인 충막공사장의 여기저기에 둘러앉아 대대의 락천가들이 련발하는 기지어린 롱담과 유모아를 들으며 즐거운 웃음판을 펼치였다.

그 한쪽에 박홍만동무가 있었다. 그는 수첩을 펼쳐들고 무슨 글인가를 부지런히 써내려가면서 대원들이 폭소를 터뜨릴 때마다 덩달아 사람좋은 미소를 짓군 하였다.

그런 가운데 오후작업시간이 박두하였다. 그날따라 바람이 몹시 세찼는데 작업을 하기 위해 남먼저 자리를 뜨던 박홍만동무는 충막조립용발대목중 하나가 서서히 기울어지는것을 발견하였다. 길이가 4m나 되는 아름드리통나무가 넘어지는쪽에 대원들이 앉거나 서거나 하며 있는것을 본 그는 《피하라!》 하고 웨치며 번개같이 달려가 기울어지는 발대목에 한쪽 어깨를 들이대면서 두팔로 힘껏 그러안았다.

그가 필사적으로 발대목을 버틴 시간은 불과 몇초. 그동안에 수십명의 대원들이 위험구간에서 벗어났으며 그 발대목과 련결된 다른 발대목들에 올라가있던 대원들도 안전한 곳으로 뛰여내렸다.

다음순간 쾅- 하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여러 발대목들이 한꺼번에 무너져내렸다. 그는 이렇게 동지들의 곁을 떠나갔다.

남포시려단 정치부장 리철남동무는 우리에게 말하였다.

《발대목이 기울어지는것을 제일먼저 발견한 박홍만동무가 몇걸음만 뒤로 물러섰다면 그는 얼마든지 살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맞받아나가 한몸을 내대였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쉰다섯살의 당세포위원장은 무엇을 생각하였을가. 과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최후를 향해 선뜻 걸음을 내짚게 하였는가.

그 대답을 우리는 그가 목숨바쳐 구원한 돌격대원들의 꾸밈없는 토로에서 듣게 되였다.

한 대원은 《우리 당세포위원장동지는 친아버지와도 같고 친어머니와도 같았습니다.》라고 눈물에 젖어 이야기하였다.

올해 양력설을 앞두고 수도의 한 살림집건설장에서 일하던 돌격대원들은 휴가를 가게 되였다. 저저마다 정든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향집으로 갈 차비를 서둘렀지만 그 대원은 풀만해하였다. 량부모를 다 잃은 그는 집으로 간댔자 반겨맞을 사람이 없었던것이다.

대대에는 그와 같은 돌격대원들이 여러명 있었다. 한자리에 모인 그들이 수도의 야경이나 실컷 구경하자고 하면서 제나름의 계획을 세우고있을 때 휴가배낭을 멘 박홍만동무가 병실에 들어섰다. 매 사람을 한명한명 여겨본 당세포위원장은 아무 말없이 병실을 나섰다.

그날 밤 돌격대원들은 김일성광장에 가서 제야의 종소리도 듣고 수많은 사람들로 흥성이는 얼음조각축전장도 돌아본 다음 병실에 돌아오자 바람으로 단잠에 곯아떨어졌다.

올해 첫아침이 밝아올무렵 귀에 익은 목소리가 그들을 깨웠다. 집에 간줄 알았던 당세포위원장이였다.

영문도 모르고 그한테 이끌려 돌격대식당으로 간 돌격대원들은 푸짐한 식탁을 보게 되였다. 거기에서는 평천구역에 사는 그의 형수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반겨맞았다. 뜨거움에 목이 메여 주춤거리는 그들을 한명, 두명 식탁앞에 데려다 앉히며 당세포위원장은 말하였다.

《부모들이 차려주는 명절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많이들 드오.》…

이 사실을 알게 된 려단지휘관들이 왜 집에 가지 않았는가고 나무람하였을 때 박홍만동무는 병실에 남아있는 동무들을 보니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라고, 돌격대에서야 동무들과 함께 쇠는 명절이 진짜로 즐거운 명절이 아닌가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근 2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적이 깃든 나라의 방방곡곡에 충정의 구슬땀을 바쳐온 박홍만동무는 가족들과 생활한 날보다 돌격대원들과 함께 보낸 날이 더 많다. 그 나날에 뜻과 정을 맺은 동지들의 귀중함을 심장깊이 조아박은 그였다. 동지들의 기쁨과 아픔을 자신의것으로 여기는 그의 참된 마음은 당세포위원장사업을 시작한 후 더욱 뜨거워졌다.

돌격대의 만군자인 그가 어찌다 외출하거나 휴가를 받군 하는 리유는 단 한가지였는데 대대의 후방사업에 보탬을 주기 위해서였다.

돌격대원들이 잠든 깊은 밤 병실에는 남모르는 그의 발자욱소리가 조용조용 울리군 하였다. 어린 돌격대원들이 잠결에 이불을 차던진것을 보면 다시 덮어주고 그들의 어지러워진 신발과 양말들을 한아름씩 걷어다가 밤새 빨아 말리워주군 한 그의 모습은 진정 고향집아버지였던가 어머니였던가.

한 돌격대원은 쉰살을 넘긴 나이에도 자기들과 함께 어울려 삽질을 하고 맞들이를 들고 달리며 궂은일, 마른일 가리지 않은 당세포위원장에 대하여 눈물겹게 추억했다.

돌격대생활의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 진격의 돌파구를 여는 가장 책임적인 위치에는 항상 당세포위원장인 자기가 서야 한다는것을 늘 자각하며 산 그였기에 뜻밖에 닥쳐온 위기의 순간에 동지들을 위해 한몸을 서슴없이 내댄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 당세포위원장처럼 동지들과 집단을 위하여 삶을 빛내이겠다고 하는 돌격대원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가 고결한 인간의 모습과 함께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다.

우리 당이 키운 참된 당세포위원장, 그의 빛나는 생의 나날들과 값높은 최후는 수많은 돌격대원들의 삶의 모범으로, 그들의 참된 인생길의 또 하나의 억척같은 지지점이 될것이라고 우리는 굳게 믿는다.

본사기자 허명숙

당의 믿음을 생명처럼 간직하고

황주군 포남협동농장 기사장 정명남동무

포남협동농장은 황주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는 단위들중의 하나이다. 벼들이 싱싱하게 자라고있는 농장벌을 찾아 그 비결을 물었을 때 농장일군들은 기사장 정명남동무를 우리앞에 내세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은 맹세나 결의만 할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당의 로선과 정책을 받들어야 하며 맡은 임무를 책임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정명남동무는 우리에게 자기 한생에서 제일 놀라왔던 일부터 이야기했다. 그것이 바로 포남협동농장 기사장으로 임명된것이였다. 과수학을 전공한 그에게 있어서 논벼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농장기사장 사업을 맡게 된것은 충격적인 일이 아닐수 없었다.

그가 몹시 난감해하고있을 때 군의 한 일군이 찾아왔다.

《동무 당원이 아니요. 당에서 동무가 얼마든지 할수 있다고 보는데 왜 소심해서 그러는거요? 모르면 배워서 하면 되지 않소.》

일군의 준절한 말에 그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당의 믿음앞에서 할수 있는가 없는가부터 먼저 생각한 자신을 뉘우치며 기술학습에 달라붙었다.

하루일을 마친 저녁이면 그는 작업반기술원들을 찾아갔다. 학생으로 생각해달라고 하며 논벼생산과 관련한 과학기술적문제들에 대하여 파고드는 기사장의 허심한 자세와 정열에 작업반기술원들은 깊이 감동되였다.

작업반기술원들의 집에서 돌아온 후에도 사방 수소문하여 구해들인 농업대학교과서들과 참고도서들을 붙들고 새날이 밝도록 씨름질을 하군 하였다. 그렇게 수년세월이 흘러갔다.

어느날 정명남동무는 한 작업반장으로부터 비료때문에 정보당 수확고가 떨어질것 같다는 말을 듣게 되였다.

비료가 모자라는 조건에서 어떻게 하면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수 있겠는가. 이에 대하여 사색을 거듭하던 그는 농업기술을 소개한 어느 한 참고도서를 보는 과정에 적은 비료를 가지고도 소출을 높일수 있는 새로운 비료주기방법을 도입해볼 생각을 하게 되였다.

해당 기관들과의 련계밑에 그 방법이 농작물생육의 과학적리치에 맞는다는것을 알게 되였을 때 그의 기쁨은 참으로 컸다.

이 일을 계기로 그는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리치에 맞게 하는데로 지향시켜나갔다.

농장에는 다른 논에 비하여 소출이 떨어지는 백수십정보의 논들이 있었다. 그 논들의 조락현상의 근본원인이 지하랭습을 받아 초기생육이 좋지 못한데 있다는것을 밝혀낸 그는 그에 맞는 농사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애썼다.

정명남동무는 그 논들과 같은 토양에서 논벼소출을 높이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켜 종전보다 알곡소출을 높여나갔으며 그로 하여 몇해전에는 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하루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

당과 수령께 충실하고싶어도 지식과 기술이 없으면 헛된 욕망으로밖에 남지 않는다는것이 그의 확고한 신조였다.

바로 그것이 그가 농장에서 자기 위치를 든든히 차지한 기술일군으로서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보람찬 삶을 꽃피우게 한것이다.

그가 지금껏 현장에서 일하며 받은 여러건의 창의고안증서와 새 기술도입증들은 이 나라의 한 기술자로서 당과 조국을 높은 실력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갈 투철한 각오와 불같은 열정의 산물이다.

본사기자

평화와 통일의지를 판별하는 시금석

오늘 우리 민족앞에는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다그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고 조선반도의 평화번영,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가야 할 과제가 나서고있다.

북과 남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한 북남고위급회담을 진행한데 이어 북남장령급군사회담, 북남적십자회담, 북남철도협력분과회담, 북남도로협력분과회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화를 추진하였다.

이런 속에 얼마전 평양에서는 북남통일롱구경기가 진행되였다.

판문점선언을 성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우리의 의지는 확고하다. 북과 남은 체육분야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사업들을 통해 다방면적이며 전면적인 관계개선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남협력의 오솔길을 온 겨레가 활보할수 있는 조국통일의 대통로로 만들어나가자면 북과 남이 판문점선언의 리행을 위해 보조를 맞추면서 그 실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서 자주적으로 풀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력사적인 판문점선언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전면적으로 계승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판문점선언의 리행에서 어떤 태도와 립장을 취하는가 하는것은 북남관계의 근본적인 개선과 조선반도평화와 통일을 바라는가 바라지 않는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으로 된다.

북과 남은 이미 6.15공동선언을 통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나갈것을 세계앞에 엄숙히 확약하였다. 판문점선언에서도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하였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지혜를 합쳐나갈 때 북남관계에서 해결 못할 문제가 없으며 그 어떤 난관과 장애도 능히 극복할수 있다. 이것은 6.15통일시대의 현실을 통해 뚜렷이 립증되였다.

그러나 복잡많은 북남관계의 력사는 민족공동의 합의를 외면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을 거부하면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심각한 교훈도 새겨주고있다.

다 아는바와 같이 남조선의 보수세력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그 리행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고귀한 전취물들을 모조리 말살해버렸다. 하여 북남관계는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지고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는 극도로 고조되였다.

이런 불미스러운 과거가 다시는 되풀이되여서는 안된다.

지금 남조선에서 반통일세력의 단말마적인 도전은 맥을 추지 못하고있으며 판문점선언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리행을 요구해나서는 각계 단체들과 인민들의 활동은 계속 강화되고 있다.

북남관계개선은 전적으로 그 당사자들인 북남당국의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판문점선언이 우리 민족에게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환히 밝혀주고있고 선언의 철저한 리행을 해내외의 온 겨레가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는 이상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것도 없다.

지금은 백마디의 말보다 실천이 더 중요한 때이다.

우리는 북남관계의 전면적이며 획기적인 개선과 발전, 조선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위해 지금까지의 판에를 초월하는 파격적인 조치까지 취하면서 온갖 성의를 다하고있다. 우리의 주동적이며 적극적인 조치들은 내외의 일치한 환영과 지지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조선반도의 첨예한 군사적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것은 판문점선언의 중요한 합의사항이다. 북과 남은 판문점선언이 가리키는 방향에서 상대방을 자극하고 반대하는 군사훈련들을 중지하고 군사적신뢰를 구축하는데로 나가야 한다.

그 어떤 난관도 극복하고 판문점선언을 철저히 리행하겠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질 때 북남관계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은 활짝 열리게 될것이며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도 그만큼 앞당겨지게 될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판문점선언을 리행하는 길이 바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고 조선민족이 강성번영하는 길이라는 확신을 안고 그 실천을 위한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박철준

감출수 없는 강제유인랍치범죄의 진상

최근 남조선에서 박근혜패당이 정보원을 내세워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집단적으로 강제유인랍치한 특대형범죄의 내막이 다시금 폭로되였다. 며칠전 유엔인권기구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직접 만나본데 의하면 그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남조선에 오게 되였다고 하면서 만약 그들이 랍치된것이 사실이라면 범죄로 간주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철저한 조사로 사건관계자들을 처벌하며 조국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는 녀성종업원들의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남조선보수패당의 유인랍치범죄에 직접 가담하였던 당시 식당지배인도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보원이 녀성종업원들을 끌고오라고 회유도 하고 자신들과 협력한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협박도 하였다고 실토하였다. 또한 녀성종업원들모두는 새로 개설된 식당에서 일하는줄 알고 따라나섰다가 남조선비행기에 올라서야 진상을 알게 되였다고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다. 이로써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그 무슨 《집단탈북사건》의 진상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유엔인권기구관계자의 피해자면담과 이전 식당지배인의 진술은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집단탈북사건》이라는것이 박근혜역적패당이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불리한 정치형세를 역전시킬 불순한 목적밑에 꾸며낸 모략극이라는것을 명백한 사실로 립증해주고있다.

폭로된바와 같이 지난 2016년 4월에 일어난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강제유인랍치사건은 박근혜패당이 치밀하게 계획하고 감행한 조직적인 특대형범죄행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패당은 뻔뻔스럽게도 그 무슨 《자진탈북》이니, 《인권보호》니 하는따위의 황당무계한 나발을 불어대면서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생사여부와 거처지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그들이 《정착하여 안정된 생활》을 하고있는듯이 허튼 여론을 내돌렸다.

이번에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강제유인랍치만행의 진상이 더욱 낱낱이 드러난것은 박근혜패당이야말로 저들의 더러운 정치적목적실현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비렬한 음모책동도, 불법무법의 모략행위도 서슴지 않은 천하의 무뢰한들이며 인륜도덕도 국제법도 안중에 없는 깡패집단이라는것을 말해주고있다.

지금 온 겨레와 국제사회는 저들의 추악한 죄상이 폭로될가봐 우리 녀성종업원들을 정보원의 통제와 감시하에 사회와 철저히 격리시키고 《귀순》이니, 《정착》이니 하며 여론을 오도해온 역적패당의 반인륜적악행에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하고있다.

문제는 모략사건의 흑막이 여지없이 밝혀진 오늘날에 와서까지 막무가내로 그것을 부정하면서 파기 보수 《정권》의 죄악을 씌고도는 현 남조선당국자들의 철면피한 처사이다. 사건의 진상이 백일하에 드러난 지금도 통일부장관 조명균을 비롯한 남조선당국자들은 구태의연하게 《자유의사에 의한 탈북》이라는 판에 박은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마땅한 해결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고있다. 말끝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고 떠들며 도처에 수술칼을 들이대는 남조선당국이 무엇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꾸며낸 《기획탈북사건》에 대해서만은 손대는것을 꺼려하는지 리해할수 없다. 남의 귀한 딸자식들을 몇해째 부모와 강제로 갈라놓고도 《리산가족의 아픔》이니, 《인도주의문제해결》이니, 《남북관계발전》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남조선당국의 표리부동한 행태에 환멸을 금할수 없다.

박근혜패당에 의해 강제유인랍치된 우리 공민들에 대한 대도문제는 남조선당국의 북남관계개선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나 같다. 우리 녀성동민들의 송환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지 않으면 일정에 오른 북남사이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은 물론 북남관계의 앞길에도 장애가 조성될수 있다.

지금 남조선의 언론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 녀성종업원들에 대한 강제유인랍치는 《정보기관이 개입된 범죄》라고 성토하면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을 돌려보내며 책임있는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그러면서 그것이 새로운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현 당국이 선차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박근혜보수 《정권》이 감행한 반인륜적범죄행위들에 대해 늦게나마 시인하고 사건의 진상에 대해 엄격히 조사하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리고 김련희녀성을 비롯하여 강제억류하고있는 우리 녀성공민들을 공화국의 품으로 즉시 돌려보내는것으로써 판문점선언리행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우리는 앞후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주시할것이다.

심철영

초불민심을 대변한 활동

남조선에서 진보적경향의 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얼마전 이 단체는 대전지방법원에 1986년에 있은 《보안법》위반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민변은 최근 대전의 한 주민이 1986년에 《보안법》위반이라는 루명을 쓰고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당시의 사건기록과 증인진술 등을 검토하였다.

결과 당시 교형리들이 그에게 악착한 고문을 들이대여 《북을 찬양》하였다는 허위자백을 받아내고 징역형을 들씌우는 죄거를 감행한 사실을 밝혀내게 되였다.

이에 대해 폭로하면서 민변은 재심을 통해 무고한 주민의 삶을 무참하게 짓밟은 살인마들의 죄악을 따지고 수많은 진보적인사들, 통일애국운동에 나서는 의로운 사람들을 억압, 탄압하는 도구로 리용되여온 《보안법》의 몸서리치는 파쑈적정체를 만드시 밝혀낼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민변이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민변은 1988년 5월 남조선의 량심적인 변호사들이 《인권옹호와 사회정의실현》을 전면에 내걸고 조직한 민주화운동단체이다.

민변은 《유신정권》을 비롯한 남조선의 과거 독재《정권》들이 통일애국인사들과 정치적반대파들을 제거하고 사회를 파쑈화하기 위해 조작해낸 인민혁명당사건, 민청학련사건 등 각종 모략날조사건들의 진상을 밝혀내고 사건관련자들을 무죄로 판결하도록 하는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이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박근혜패당이 북남대결과 《정권》유지를 목적으로 꾸며낸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을 비롯한 여러건의 불순한 반공화국모략극들의 내막이 폭로되고 그로 하여 매국과 파쑈, 반통일대결에 열을 올리던 역적무리들은 궁지에 빠지였다.

지금도 민변은 보수패당의 부정부패행위를 신랄히 폭로단죄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벌리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지금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대중적인 초불항쟁으로 보수《정권》을 뒤엎은 그 기세로 보수적폐청산투쟁을 계속 고조시켜나가고있다.

민변은 이런 분위기를 타고 리명박, 박근혜패당의 특대형범죄사건들이 터져나올 때마다 그 진상을 폭로하고 검찰에 고소, 고발하는 등 각계층의 반보수, 적폐청산투쟁의 선봉에서 주동적인 역할을 하고있다. 그리고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나라의 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진보적인 단체들과 인사들, 청년학생들과 로동자들을 변호하고 그들과의 공동투쟁에도 적극 나서고있다.

민변은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을 위한 활동도 활발히 조직전개하고있다.

단체는 성명과 론평발표, 기자회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조미수뇌회담을 적극 지지환영하고 반통일세력의 준동을 폭로단죄하면서 남조선사회에서 통일기운을 고조시키는데 큰 기여를 하고있다. 최근에도 력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 18돐을 계기로 진행된 통일행사들에서 판문점선언의 철저한 리행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갈것을 각계의 통일운동단체들에 열렬히 호소하였다.

민변은 보수패당에 의해 강제랍치된 김련희와 12명의 우리 녀성종업원들의 송환을 위한 법적투쟁도 완강히 벌리고있다.

민변소속 인물들은 참여련대, 민주로총을 비롯한 진보적인 운동단체들에서 법률고문, 변호사로 활약하고있다고 한다. 지금 민변출신들은 각종 위원회들의 주요직들을 차지하고 보수적폐청산과 권력기관개혁을 주도하고있다.

최근에는 전 민변 회장이 대법관후보자로 나서는 등 《보수의 최후보루》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도 진출하려 하고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적극적인 활동은 남조선의 초불민심을 대변한것으로서 보수역적패당에 대한 증오와 분노심을 안고 적폐청산투쟁에 떨쳐나선 각계층 인민들의 지지를 받고있다.

민변의 지위와 영향력, 적극적인 활동에 불안감을 느낀 남조선의 보수패거리들은 민변출신들이 판을 치는 시대가 오고있다느니, 현 당국의 《사법개혁》에 날개가 달리게 되였다느니 하면서 아우성을 치고있다. 한편 이 단체의 활동을 가로막아보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그것은 민심의 규탄과 비림을 받고 시대흐름에서 밀려나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지는 력사의 반동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일뿐이다.

보수패당의 그 어떤 지랄발광도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을 가로막을수 없다.

부패무능하며 매국반역적인 보수역적패당을 력사의 무덤속에 매장해버리고 새 정치, 새 생활을 지향해나가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더욱 확대강화될것이다.

본사기자 라설하

로동정책을 반대하는 대중적투쟁

최근 남조선에서 민주로총을 비롯한 로동운동단체들과 각계층 인민들이 대규모적인 시위와 집회들을 벌리면서 당국의 로동정책을 반대하고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있다.

지난 6월 30일 서울의 광화문광장에서는 민주로총이 개최한 대규모적인 《비정규직철폐 전국로동자대회》가 진행되였다. 10만명에 달하는 집회참가자들은 《최저임금개악 투쟁으로 분쇄하자.》, 《비정규직없는 세상 투쟁으로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힘차게 웨치며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을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견결한 의지를 과시하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특수고용로동자, 비정규직로동자들이 저임금과 각종 차별 등 극단적인 환경에 내몰리고있다고 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투쟁으로 생존권을 쟁취할것이라고 다짐하였다. 그들은 박근혜역도가 탄핵되여 《정권》이 바뀌였지만 로동자의 삶은 하나도 나아진것이 없다고 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약속이 실행되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며 절망속에 살아가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오직 자신들의 투쟁으로써만 생존권을 지킬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민주로총은 집회를 통해 로동자들의 생존권이 존중되고 비정규직이 없는 사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의지를 과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금속로조는 지난 10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총파업투쟁에 돌입할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하여 재벌들의 온갖 불법행위를 묵장내며 로동자들의 임금인상과 사회량극화해소를 위한 투쟁에 떨쳐나설것을 결의다지였다. 또한 로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해 날뛰면서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몰아가고있는 재벌들을 준렬히 단죄하였다.

건설로조도 12일 서울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건설로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해 법과 제도를 바꿀것을 요구하였다.

대회에서 발언한 민주로총 위원장은 건설부문 로동자들의 파업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성을 보장하여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고무하면서 전체 로동자들이 힘을 합쳐 생존권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재벌들의 리익을 반영한 《최저임금법》개악은 번개불에 콩 닦아먹듯 빨리 해치운 당국이 건설부문 로동자들의 생명안전을 위한 《법안》의 처리는 각종 구실을 내대며 미루고있다고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당국이 하루빨리 로동적폐청산에 나서지 않는다면 광범한 로동자들이 들고일어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남조선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로동자들이 당국의 로동정책을 반대하여 투쟁에 떨쳐나서고있는 속에 언론들과 전문가들은 《일자리〈정부〉에서 일자리참사가 빚어졌다.》, 《친로동정책이 반로동정책으로 되였다.》고 평하고있다. 그러면서 현 당국의 경제, 민생성적표가 좋지 않다, 사람들속에서 살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말로만 경제와 민생을 외워대지 말고 경제회복을 목표로 삼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실업문제가 악화되고 소득분배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 민생문제가 심각한 사회적문제로 등장하고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오고있다.

리홍철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결성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11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련대(정의련)가 결성되였다.

16일 정의련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8년전부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해 투쟁해온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3년전에 설립되였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을 통합하여 정의련을 내오게 되였다고 밝혔다.

피해자명예회복, 인권회복사업과 관련연구, 조사사업, 해내외단체들과의 련대투쟁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할것이라고 단체는 밝혔다.

단체는 《전쟁과 녀성인권연구소》를 새로 내오고 일본당국의 범죄사실을 립증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하는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의련결성과 관련하여 리사장으로 선출된 이전 정대협상임대표 윤미향은 녀성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의 증언과 활동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일본군성노예문제의 옳바른 해결과 전시 성폭력범죄의 근절을 반드시 이루어냄으로써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를 실현할것이라고 다짐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남조선신문 보수패당이 수렁으로 빠지고있다고 조소

남조선의 《세계일보》가 6월 30일 보수패당이 수렁으로 빠지고있다고 조소하는 글을 실었다.

신문은 지난 6월 13일 지방자치제선거와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이 대참패를 당하였고 중도를 표방하며 개혁보수의 간판을 내들었던 《바른미래당》도 굴욕의 쓴맛을 본데 대해 언급하였다.

앞으로 이러한 패배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 보수진영내부는 게파싸움으로 지리멸렬되고있다고 신문은 지적하였다.

신문은 보수진영이 옳바른 정책안과 인재가 없는데다 지지세력까지 사멸되여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일본의 고질적인 《자살병》은 고칠수 없다

일본이 2018년판 자살대책백서를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라는것을 보면 정부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있는 자살행위의 특성을 분석하여 자치체들의 자살대책계획작성을 지원하며 또 인터네트를 통하여 젊은 사람들과의 상담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는것이다.

일본에서 자살을 막기 위한 대책안이 나온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마다 일본당국자들은 자살원인을 찾는다, 대책을 세운다 어쩐다 하며 무산을 피워왔다. 하지만 그 모든것이 실속이 없는 말장난으로 끝나고말았다. 이번에도 일본당국이 자살대책백서라는것을 내놓고 당장이라도 무슨 큰 변화를 가져올것처럼 놀아대지만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본은 이번 자살대책백서에 특성분석이니, 상담사업전개를 위한 연구추진이니 하는것을 토아박았는데 이전과 별로 다른것이 없다. 신통히도 늘 하던 판에 박힌 소리를 그대로 집어넣었다.

지금까지 일본당국은 개별적 사람들이 자살의 길을 택하는것은 성격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겼기때문이며 따라서 이것만 방지하면 능히 자살을 막을수 있다고 하면서 상담의 방법으로 적절한 의학적, 심리적치료를 받게 하여야 한다고 떠들어왔다.

실지 그런 놀음을 벌려놓고있다. 그러나 자살자수는 줄어든것이 아니라 늘어나고있다.

자살형식과 방법도 더욱 다양해지고있다. 하기는 말세기적인 자살문화가 만연되여있는 곳이 바로 일본이라고 볼 때 그리 이상해할것도 없다.

문제는 자살자들속에 젊은이들이 많다는것이다. 앞길이 구만리같은 젊은 세대들속에서 자살자들이 늘어나고있는것은 심각한 사회적문제이다.

일본당국자들도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그래서인지 이번 백서에 젊은 세대의 자살행위가 급증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보아도 매우 심각하다.》고 밝히였다. 그만큼 일본에서 젊은이들의 자살은 사회의 골치거리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도쿄키현의 한 고등학교에서 17살 난 2명의 녀학생이 앞날과 가정문제 등으로 고민하던끝에 7층에서 뛰여내려 자살하였으며 구마모토현에서도 17살 난 녀학생이 《정말 고통스럽다.》, 《더는 살고싶지 않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하였다.

사건들은 일본당국이 자살대책백서를 공개하기 직전에 발생하였다. 하다면 일본당국이 짜하면 자살방지를 위한 대책안이라는것을 만들어내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살이 도무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있는가.

사회적재부의 대부분을 극소수의 특권층이 장악하고있는 일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대한 좌절감과 정신적허탈감에 빠져 헤매이고있다. 그들은 앞날에 대한 아무런 희망도 가지지 못하고있으며 가정을 이룰 꿈마저도 포기하고있다.

젊은 사람들 특히 대학생들이 받는 심리적타격은 더욱 심하다. 그들은 학비보장을 위해 숱한 대부금을 받아 공부를 하고있다. 대학문턱을 넘기도 전에 방대한 빚더미우에 올라앉게 된다. 때문에 그들은 빚을 갚기 위해 졸업전부터 일자리를 얻어보려고 뛰여다닌다. 그러나 직업을 얻는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은 많은 대학졸업생들이 빚단련에 시달리고있다.

그들에게는 살아가는것자체가 고통스럽고 막막한 일로 되고있다. 이로 하여 번민에 모대기다가 나중에는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대학졸업생들의 처지가 이러할진대 대학을 다니지 못한 사람들의 경우가 어떠하겠는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일본사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졸업을 앞둔 고등학교학생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길을 택하겠는가 하는것은 구태여 더 론할 필요가 없다.

일본에서 젊은 자살희망자들이 콤퓨터망을 통하여 서로 자기들이 왜 자살하려고 하는가에 대해 심도하고 자살할 장소와 방법을 토론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분명 이들은 앞날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사회에서 불안과 피로움속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편이 낫다는 공통된 심리로부터 이런 행동을 하였을것이다.

일본에서 우울증환자들과 자살자들이 늘어나고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바로 사람들이 누려야 할 초보적인 권리마저 짓밟고 앞날의 희망마저 짓눌러버리는 반인민적인 사회제도에 있다. 그러니 그 방지처방도 명백하다.

썩은 사회가 변화되지 않는한 언제 가도 일본의 고질적인 《자살병》은 고칠수 없다.

본사기자 리확남

이스라엘군의 공습만행

이스라엘군이 17일 팔레스티나의 가자시를 또다시 공습하였다. 이날 가자시상공에 날아든 이스라엘군무인기가 팔레스티나인청년들이 모여있는 곳에 1기의 미싸일을 발사하였다고 한다. 가자지대에서는 이스라엘의 야수적인 살륙만행으로 지난 3월 30일부터 현재까지 140명의 무고한 팔레스티나인이 목숨을 잃고 1만 6 000여명이 부상당하였다.

나토의 군사연습소동

나토공군의 군사연습이 16일 벌가리아에서 시작되였다.

10여일동안 계속될 이번 연습에는 미국, 영국, 그리스, 벌가리아의 각종 전투기들이 동원되게 된다.

또한 반항공미싸일부대들도 연습에 참가한다고 한다.

나토무력의 연습소동은 지역의 정치군사적긴장을 격화시키고있다.

【조선중앙통신】

사회적진보와 발전을 위하여

산림조성

중국 하남성에서 산림조성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최근 성 림업청이 밝힌데 의하면 성적으로 747만 2 200무의 산림을 조성하여 산림덮임률을 지난 시기에 비해 약 2.7% 늘이였다고 한다.

고속철길부설공사 추진

마로끄에서 고속철길부설공사를 다그치고있다. 12일 이 나라 철도당국은 탄제르와 카사블랑카를 련결하는 고속철길이 올해말에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 고속철길이 완공되면 주행시간이 5시간으로부터 약 2시간으로 단축되게 된다.

제조업부문 수출 증대

라오스에서 제조업부문 수출액이 지난 5년동안에 거의 3배로 증대되였다. 특히 전자, 먼거리통신, 전기제품생산부문의 반제품수출이 늘어났다.

16일 이 나라 신문 《비엔티안 타임스》가 밝혔다.

문화유산보호노력

최근 탄자니아정부가 9월을 문화유산을 소개선전하는 기간으로 선포하였다.

이 기간 문화유산축전이 진행되는데 여기서는 민속전통의식들과 전통미술 및 공예품전시회, 전통무용 및 음악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축전은 탄자니아인들이 자기 문화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도록 하며 특히 새 세대들이 민족의 력사와 문화를 똑바로 인식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있다고 한다.

관광업발전노력

케냐아에서 관광업발전을 위해 해양박물관들을 세울것을 계획하고있다. 이에 따라 바다, 호수, 강근처에 박물관들이 건설되며 거기에는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수 있는 수중문화유산들이 전시되게 된다.

인디아양과 접하고있는 이 나라 남부지역 앞바다의 물밑에는 수백년전에 여러 나라 탐험가들이 사용하였던 30척의 난파선이 그대로 보존되여있다. 또한 강과 호수주변에는 고유한 생활풍습으로 살아가는 토착민들이 있다고 한다.

전염병예방사업

브라질정부가 12일 전국적범위에서 전염병예방을 위한 완전접종계획을 발표하였다. 그에 따라 8월 6일부터 31일까지 5살미만 어린이들이 소아마비 및 홍역완전을 접종받게 된다.

이 나라에서는 2016년에 종식되였던 홍역이 최근에 또다시 전파되고있다고 한다.

수출증가

싱가포르에서 6월에 원유를 제외한 제품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1% 늘어났다. 17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차잎생산

네팔에서 년간 차잎생산량이 220만톤에 달하고있다.

전국적인 차잎재배면적은 1만 2 000ha이상이라고 한다. 최근 이 나라의 중앙통계국이 밝혔다.

비원유제품수출액 증가

에싱트에서 올해 상반년에 비원유제품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4% 증가하였다.

16일 이 나라 정부가 밝혔다.

농산물수출액 증가

파키스탄에서 2017년-2018년에 농산물수출액이 2016년-2017년에 비해 약 10~15% 늘어날것이 예견되고있다. 정부는 앞으로 2030년까지 농산물수출액을 현재의 10배이상으로 늘일것을 계획하고있다 한다.

고무수출 증가

캄보쟈에서 올해 상반년에 8만 4 419t의 고무를 수출하였다. 이것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더 많은것이라고 한다. 이 나라에서는 고무나무재배면적이 43만 6 299ha에 달하고있다.

이란에서 상수도건설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현상

세계기상기구가 7월에 세계 각지에서 이상기후현상이 관측되고있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7월 평균강수량의 2-4배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려 피해를 입었다.

북아프리카와 미국서해안지역에서는 기록적인 고온현상이 나타났다.

알제리의 우아르글라도에서 5일 과거 최고기온인 51℃를 기록하였다고 한다.

세계적인 어린이예방접종실태

16일 세계보건기구와 유엔아동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에 세계적으로 1억 2 300만명의 어린이들이 각종 전염병 및 질병방지를 위한 왁찐을 접종받았다.

한편 약 2 000만명의 어린이들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였는데 그들중 40%가 분쟁지역 나라들에서 살고있다고 한다.

【조선중앙통신】

ㄱ-1811145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등록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문설원실 373-2492, 당력사교양부 373-2686,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2782,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